



한국의 서원유산 1



한국서원문화연구원

9 4 9 1 0
9 788993 958744
ISBN 978-89-93958-74-4
ISBN 978-89-93958-75-1 (세트)

비매품



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한국의 서원유산 1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문화적 전통, 정신은 물론 지성적인 무형유산의 가치와 유교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형유산의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 미래의 정신적 원동력을 유학에서 찾으려는 요즘, 서원의 가치도 재평가 되고 있다. 모두가 물질적 성공을 말할 때, 자연과 인간을 말하는 서원, 서원은 미래를 향한 힘이 될 것이며, 한국의 문화유산을 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한국의 서원유산 1



한국의 서원유산 1

들어가며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는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서원총서(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기획·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등재 대상 9개 서원은 영주 소수서원(사적 제55호), 함양 남계서원(사적 제499호), 경주 옥산서원(사적 제154호),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장성 필암서원(사적 제242호), 달성 도동서원(사적 제488호), 안동 병산서원(사적 제260호), 정읍 무성서원(사적 제166호), 논산 돈암서원(사적 제383호)입니다.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1년 4월 국가브랜드위원회·문화재청·14개 지방자치단체 및 서원 운영자, 서원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했고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3월 국가브랜드위원회·문화재청·14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고, 4월에는 정식으로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발족하여 등재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서 작성, 국내·국제학술대회 개최, 워크숍 개최, 해외 유사유산 답사 진행 등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선시대 서원의 복합적 기능과 역할을 각기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서원은 교육적 기능으로서의 강학과 장수·예학禮學,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제향과 문중門中활동, 향촌민 교화, 정치 여론 수렴 기구로서의 역할, 그리고 서원 건물과 관련된 건축 공간 및 배치, 자연 환경 및 수려한 경관 등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6

오늘날 우리나라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룬 원동력에는 교육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교육에는 지식의 차원뿐 아니라 심성을 끊임없이 바로잡는 인성교육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립학교의 효시인 서원 교육에는 인류의 미래지향적 가치인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자연, 평화 등을 추구하는 융합적인 조화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원에 들어서면 아름답고 우아한 자연 경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백 년을 역사의 증인으로 지켜온 나무들이 울창하고 맑은 계곡이 흐르고 주변 산세와 어울리는 목조 건축의 아름다운 조화는 백 마디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배움과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원의 현판 하나하나에 새겨진 문구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을 드나들 때나 누정에서나 강학당·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사당에서 제례할 때마다 유교가 주는 인간이 깨우쳐야 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서원끼리도 끊임없이 소통하였습니다. 서원을 찾은 손님의 명단인 심원록을 보면 유명 유학자들의 이름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기숙 생활을 하면서 상하질서·상부상조하는 협력 체제를 갖추게 하고 바로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범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지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도 이상과 같이 인류가 남긴 공동의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기획·발간하게 된 ‘서원총서(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는 총 2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책 『한국의 서원문화』는 역사, 건축, 지리 등 서원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의 서원이 가지는 특징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으며, 2책 『한국의 서원유산 1』은 등재 대상 9개 서원별로 가지는 특징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독자들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해당 서원의 도면과 사진 등을 삽입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 집필자 선생님들과 양질의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애쓰신 도서출판 문사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문화재청장님을 비롯한 14개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공무원, 서원 전문가, 서원 운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서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2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장 이배용

*일러두기

1. 본문에 수록한 서원의 순서는 창건연대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연도표기는 서기(재위년도)순으로 하였다.
3. 전집, 단행본, 성책류는 『 』로 표기했고, 문서, 기사 등은 「 」로 표기하였다.
4. 저자의 순서는 원고 내용 순이고, 소속은 책 뒤 서지사항에 일괄 표기하였다.
5. 인명은 실명을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호, 자를 병기하였다.

차례 | 들어가며 5

한국의 서원 이배용 · 정만조 · 이상해



- 1 총론 15
- 2 한국 서원의 성립과 서원문화의 특성 17
- 3 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23

소수서원 정만조 · 김의환 · 지두환



- 1 백록동과 백운동 39
- 2 문성공묘로부터 소수서원으로 49
- 3 소수서원의 문화유산 63
- 4 소수서원의 제향 인물 71
- 5 소수서원의 제향과 의례 79

남계서원 정순우 · 이상해 · 정우락



- 1 남계서원의 연혁과 제향인물 97
- 2 남계서원의 경관과 건축 109
- 3 성리학적 문화공간, 남계서원 123
- 4 서원 운영과 교육 130

옥산서원 이수환 · 이상해 · 옥영정



- 1 옥산서원의 역사와 변천 145
- 2 옥산서원 운영과 정치사회 활동 157
- 3 경제관련 문서를 통해 본 옥산서원의 경제기반 164
- 4 자연과 조화를 이룬 서원건축 171
- 5 옥산서원 소장 고문서와 장서 183

도산서원 정만조 · 정순우 · 이상해 · 이수환 · 옥영정



- 1 도산서원이 걸어온 길 201
- 2 도산서원의 교육활동 213
- 3 도산서원의 건축물과 공간구성 227
- 4 도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241
- 5 도산서원의 장서와 기록 247

필암서원 김희태 · 고영진 · 변주승 · 오경택



- 1 서원의 연혁과 문적 265
- 2 서원의 경관과 건축 273
- 3 하서 김인후와 호남학맥 277
- 4 정조의 호남 사림 포용과 하서 김인후의 문묘 중향 287
- 5 서원의 운영과 경제적 기반 290

도동서원 김택현



- 1 외로운 달이 찬 강물을 비추는 도동서원 305
- 2 한원당 김굉필과 한강 정구 307
- 3 북향하여 낙동강을 바라보는 서원 313
- 4 근세도학의 종장 · 소학동자 김굉필 316
- 5 밝은 달이 차가운 강물을 비춘다 323
- 6 엄숙정제하게 배치된 서원 건축 328
- 7 여유와 해학을 담은 건축 디테일 335

병산서원 이수환 · 옥영정 · 이상해



- 1 병산서원의 연혁과 제향인물 351
- 2 병산서원의 장서와 출판서적 365
- 3 병산서원의 경관, 건축 및 공간 375

무성서원 이해준 · 이왕기 · 전경목 · 박종배



- 1 무성서원의 역사와 변천 401
- 2 '무성'과 '현가'로 상징되는 건축 415
- 3 태인의 흥학 전통과 사족활동 423
- 4 무성서원의 교육과 강학 전통 428

돈암서원 이해준 · 이왕기 · 홍제연 · 옥영정



- 1 돈암서원의 역사와 변천 447
- 2 돈암서원의 건축구조와 응도당 459
- 3 17세기 기호예학과 돈암서원 469
- 4 예서와 문집의 출판 479

참고문헌 489



소수서원 전경

1. 총론

한국의 서원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정신과 교육적 이상의 귀중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이는 지성과 인성교육까지도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이어받을 뜻깊은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이 담긴 한국의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先賢의 제향祭享을 위해 사림士林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또한 서원은 향촌 자치 운영 기구로서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과 도덕,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나아가 서원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기록, 경관, 인물 등)들이 존재하며, 도서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다.

한국의 서원은 주로 주변의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 입지하였으며,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이 배치되면서 각각의 공간들이 형성되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었다. 선현을 배향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향공간, 유생들의 장수藏修를 위한 강학공간, 유식遊息을 위한 누문공간, 제향과 강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원공간, 그리고 서원의 주변공간으로 구분된다. 이로서 서원 건축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엿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서원과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배치형식들은 서원 혹은 서원건축에서 보이는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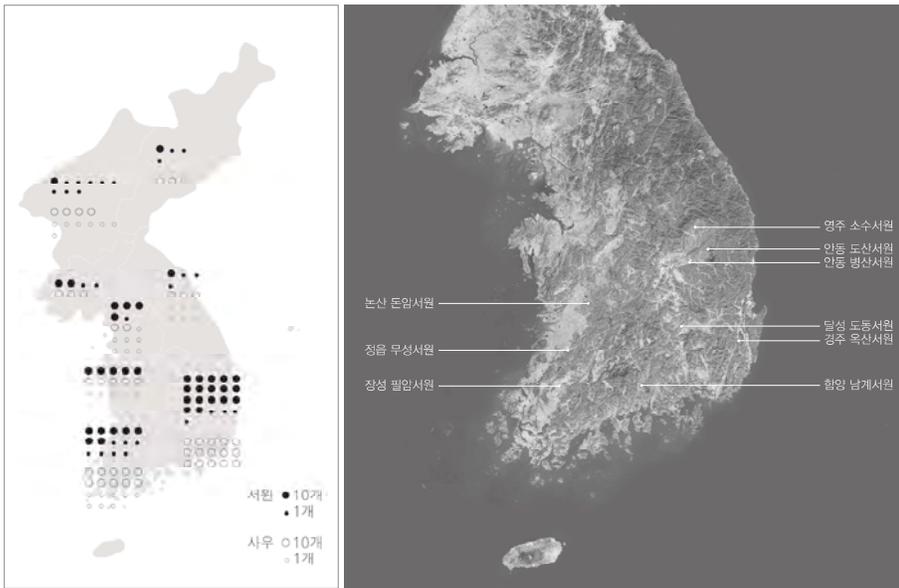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걸쳐 600여 개가 넘는 서원들이 있다. 이중에서 국가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9곳으로, 대상은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함양 남계서원藍溪書院,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장성 필암

서원筆巖書院,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논산 돈암서원濼巖書院이다.

위 서원들은 조선후기 대원군 때 훼손되지 않은 서원들로 현존하는 한국의 서원들 중 조선시대 서원의 모습과 제향을 잘 유지하고 있고, 현재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는 위 9개 해당서원을 ‘한국의 서원’으로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연속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문화적 전통, 정신은 물론 지성적인 무형유산의 가치와 유교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형유산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과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 요구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기준에 충족될 수 있다.

미래의 정신적 원동력을 유학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서원의 가치도 재평가 되고 있다. 모두가 물질적 성공을 말할 때, 자연과 인간을 말하는 서원. 서원은 미래를 향한 힘이 될 것이며, 한국의 문화유산을 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전국 서원 분포도 및 9개 서원 위치도

2. 한국 서원의 성립과 서원문화의 특성

2.1 한국 서원의 성립

한국의 서원은 조선왕조가 치국 이념으로 채택한 성리학을 사대부士大夫 계층이 차차 자신의 것으로 정착시키며 만들어 낸 시대적 산물이다. 조선시대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향촌鄕村에 서원을 건립하기 시작하였고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순흥에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효시로 삼는다.

백운동서원은 이황의 노력으로 1550년(명종 5) 2월 조정으로부터 ‘소수서원’으로 사액 받음으로써,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후 서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조선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18세기 들어 탕평蕩平과 사회변동에 따른 사림세력의 몰락으로 쇠퇴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변동 속에 훗날 대원군에 의해 서원철폐령¹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후, 서원들은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둘씩 다시 생겨나게 된다. 2011년 8월 기준 701개소(한국 637, 북한 64)²의 서원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 흥선대원군은 1868년부터 1871년에 이르기까지 단행한 서원철폐령을 통해 ‘일인일원一人一院’의 원칙에 의하여 전국의 사액서원 중에서 47개 원사院祠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과 사우祠宇는 모두 훼손하였다.

2 한국서원연합회, 『韓國書院總覽(上·下)』, 2011, 참조.

2.2 한국 서원 문화의 특성

상급신분의 전인^{全人} 교육^{教育}을 위한 사학^{私學} |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문을 통해 통치기술을 익힌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국가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질서에 순응하게 할 가르침도 갖추어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 국가는 인재양성과 만민교화를 맡은 학교를 중앙과 지방에 두었다. 국가에서 교사를 파견하고 지방관이 지원함으로 인해 이를 관학^{官學}이라 부른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과거제가 실시되면서 관학이 오로지 과거를 위한 학습장소로 변화하자 인격과 덕성의 함양을 겸하는 전인교육을 할 새로운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12세기 중반인 남송 때 주자에 의해 사학으로서 서원이 창건되고 이후 널리 보급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원 출현의 배경도 겉으로만 본다면 이와 흡사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조건이 달랐던 만큼 속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관학은 과거학습장이 되기 이전에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유생의 주축을 이루는 사족자제들이 서울의 4학은 그렇지 않았지만, 특히 지방의 향교를 외면하였던 데 있었다.

원래 조선은 인재양성에 초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학교출입에 신분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 말 조선 초의 신분적 변동기를 지나 16세기 초 중종 때에 이르러 사족중심의 양반신분제가 고착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자, 사족자제들은 양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향교에 출입하기를 점차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향교는 교생에게 균역이 면제되는 특전을 악용하려는 피역자들의 소굴이 될 뿐 학교로서의 기능은 갈수록 약화되었던 것이다.

향교를 기피하는 사족자제는 그러면 어디에서 과거공부를 했을까? 여기서 서재^{書齋}로 통칭되는 사학이 나왔다. 전직관료나 유능한 강사가 운영하는 서재는 사족자제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과거학습을 실시했다. 마치 오늘날의 전문적인 입시학원 꼴이었다. 이런 전문학원에서 학문과 동시에 인성을 기르는 전인교육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향교는 질이 저하되어 학교구실을 못하고, 사족자

제들은 출세를 좇아 과거 공부에만 몰두하는 인성교육이 부재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황李滉(1501-1570)이 주희朱熹(1130-1200)의 예를 끌어와 조선에 알맞은 서원제도를 마련하고 그것의 보급에 진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황이 비단 전인교육의 실시만을 목적으로 서원을 창건하고 보급한 것만은 아니었다. 마침 이 시기에는 사림이라는 이념집단이 정치세력으로서 대두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학이 이상으로 삼는 삼대의 지치至治를 현실에 구현할 역군으로 자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림은 개인의 입신양명과 이록을 추구하는 과거공부보다는, 성현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에 대한 철저한 수련을 거쳐 군자로 나아가려는 인격적 존재로 훈련되어야 하였다. 이황은 바로 서원을 통해 이런 사림을 양성하려 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림의 현실적 존재이다. 중국의 경우 사림과 같은 뜻을 지닌 사대부는 신분적으로 보다 개방적이었다. 사대부의 지위를 유능한 자제가 물려받기도 하지만 상인이나 농민 출신도 학문과 문예에 종사해 능력을 인정받으면 될 수 있었다. 세습성을 띤 신분보다는 종사하는 직업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달랐다. 사림은 사족이라는 양반신분층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었다. 평민이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력으로 사족이 되는 사례가 간혹 보이기는 하지만, 양반 상민의 신분적 구분은 엄격하였다. 따라서 사림 속에 사족 아닌 평민이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조선의 서원은 상급신분인 사족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강학講學과 독행篤行에 의한 전인교육을 함으로써, 국가의 원기라는 정치·사회적 핵심집단인 사림을 양성하는 학교였던 것이다.

사림활동의 보급자리 | 중국 송대의 사대부가 그러하였듯이 조선 사림도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로 알았다. 그리고 조선 사림들은 현실에서의 그 임무수행을 좁게는 향촌사회에서, 보다 넓게는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렇다고 그들이 직접 향촌민을 통치하거나 정치활동에

뛰어들지는 않았다. 그것은 지방관과 관료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들의 몫은 따로 있었다. 향촌사회와 국가를 유교적 이상사회로 이끌어가는 일이 그것이다. 이를 세도世道라 불렀다. 그러면 사림이 갖는다는 세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사림들의 공변된 의론, 즉 공론公論을 통해서였다.

국가의 통치방향이나 이념과 관련된 의리명분 및 전례문제, 사문斯文의 정통성 논란을 둘러싸고 수백 명, 때로는 만여 명이 넘는 유생이 참여한 연명상소가 나온다든가, 향촌사회의 안정과 풍속유지를 위해 향론을 모으는 과정 등은 사림 공론의 결실이었다. 사림 공론은 단순히 몇몇 유력인이 주장했다하여 형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보다 작은 단위에서 사림개개인의 발의와 토론을 거쳐 모아진 의견들을, 그 대표들이 모인 보다 큰 단위에서 취합하여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정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친 후의 산물이었다.

이처럼 공론화과정의 첫 출발에서부터 단계적인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림활동을 위해서는 모임을 갖기 위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향청과 사마소, 그리고 향교 등도 활용될 수 있겠지만, 이미 사림 양성을 통해 그 보금자리로 자리 잡은 서원이 그러한 장소로서 보다 적합하였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후일 봉당이 형성되고 당쟁이 본격화하여 사림의 정치활동인 공론이 사당私黨의 당론으로 간주되는 상황에 처하자, 서원이 당론을 전파하고 봉당세력을 확장하는 소굴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데서 유래하였다. 18세기 후반 이후 현저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서원을 근거로 한 사족의 대민착취 역시, 출발은 서원을 기반으로 한 사림의 향촌활동에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사족자제에 대한 전인교육을 담당하였던 조선의 서원은, 후일의 폐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서 양성된 사림들이 벌이는 정치·사회활동의 근거지며 보금자리였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겠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향처 |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성리학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 학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학자마다의 학설을 스

승과 제자 간에 전하고 이어받는 학파의 형성을 보게 된다. 퇴계·남명학파나 율곡·우계학파라 하는 것이 그것이다. 학파의 분기는 필연적으로 그 선사의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거점으로서의 서원 건립을 촉발하였다. 이런 경우 서원은 학설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학파의 특색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 학파의 개조開祖를 드러내어야 하였다. 서원이 강학공간(강당, 동·서재)과 함께 제향공간으로서 사묘를 세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묘祠廟에는 선사先師의 위패가 모셔지지만, 학맥을 드러내기 위해 문인이나 뛰어난 후학을 배향하는 일이 보다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배타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학자를 제향하는 서원에 출입하고 관여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학맥의 계승자이거나 학파에 속함을 의미하였다. 조선의 서원도 일차적으로 선사의 제향을 계기로 학연을 맺고 학파를 형성하는 장소였다.

서원이 나온 이후인 조선 중기는 봉당이 출현하여 정국이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조선의 봉당은 학연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고 조직되었다. 남인이 퇴계학파 위주였고 서인은 율곡·우계문인이 속했던 것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학파의 거점인 서원도 당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예송문제와 같이 서인·남인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에 서원을 거점으로 해 작성된, 각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유생상소가 속출하였던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나아가 당쟁에서 화를 입은 인물을 신원伸冤하는 차원에서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노론 의리를 천명하다 희생된 우암 송시열宋時烈(1607-1689)을 제향하는 서원이 50여 개소에 이르며, 왕세제(후일의 영조)를 보호하다가 소론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처형된 이른바 노론4대신을 영조 즉위 후 신원하면서 사충四忠서원을 세워 그 충절을 기리게 했던 사실 등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서원이 당인黨人을 조직, 결속하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당론을 확산하는 향촌적 거점이 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서원기능 확대는 곧 사회부면에도 파급되었다. 문중 내부의 인적 조직과 결속에 서원이 활용되는 새로운 면모가 나타난 것이다. 문중의

현조顯祖나 중시조를 이미 세워진 서원에 추향하거나 아예 별도로 건립하는 풍조가 크게 일어났다. 이를테면 문중서원이라 할만하다. 서원이 이처럼 학과 당파 문중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요소로서 선사나 당파의 영수, 문중 현조에 대한 제향이 중시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원의 본래 목적이 강학과 장수에 있는 만큼 이러한 제향 위주에 대해서는 비판이 일었다. 영조와 후일 대원군에 의한 서원철폐의 명분에는 이런 점이 크게 자리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강학은 공리를 위한 과정이며, 제향은 사림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는 요소이니 만큼,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사림이 본받을 만한 의리와 행실에 뛰어난 인물을 제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합리화하는 논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특정 인물에 대한 제향을 앞세워 그와 관련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측면이 조선시대 서원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렇듯 한국의 서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성현들을 모시는 사당 또는 사묘의 역할과 더불어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식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유교문화는 인물과 사상, 철학과 정신, 학문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서원의 가치도 유형의 건축물과 함께 주변 경관, 그 곳에서 생활하며 향유했던 사람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시스템에서 한층 돋보인다. 이들은 모두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이며, 또한 이 같은 서원의 전통적 가치는 현대사회에도 계승, 활용해야 하는 충분한 까닭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3. 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한국 서원이 갖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정신적인 무형적 측면과 물질적인 유형적 측면으로 구분해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본래 전인(全人)교육을 표방하고 이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단순한 지식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도덕교육의 실천의 장으로서 전통을 지키고 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정신적인 빈곤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하고 있는 오늘날, 심성(心性)의 수양과 성찰을 우선하는 서원의 전인교육 방식은 인류가 공유하고 지향해야 할 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교의 가르침과 가치관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한국 서원이 고수하여 온 “장수(藏修) 위주의 전인(全人)교육”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신적 자산이다.

한국 서원이 갖는 무형적 가치로는 먼저 “세계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로 재현되는 서원제향의식(書院祭享儀式)”을 들 수 있다. 제향의례는 중국을 통하여 전래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청대(清代)의 관학화(官學化) 과정과, 특히 1960년대의 문화혁명(文化革命)기간 유교가 반동교학(反動敎學)으로 몰리면서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서원향사(書院享祀)를 중시하여 온데다가, 수백 년 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 전통성의 보전과 제례(祭禮) 내용의 충실도, 참여 인원의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여 중국에서 도리어 배워 갈 정도다. 한국의 서원제향의식은 서원관련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한 가치를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내 인적(人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문화 활동의 구심체적(求心體的) 역할”이란 점이다. 조선시대는 서원을 중심으로 제향된 인물의 학통을 계승했거나 그 주장에 공명하는 학인들과 후손들을 중심으로 회원제 형태의 인적

조직이 구성되어 문화적 사회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을 벌여 왔다. 이런 조직은 현재도 여전히 지방사회에서 활성화 되어 있다. 이번 등재 대상에 오른 9개 서원에도 “유림儒林”이란 이름 아래 수백 명의 인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서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로터리클럽과 같은 동호인단체가 많지만, 유교 이념에 의한 이런 인적 조직은 중국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로서 한국 서원이 오늘날에 갖는 중요한 가치이다.

마지막으로 유형적 가치를 대표할 만한 것으로 “서원의 입지立地와 배치공간의 수월성 및 건물건축의 우수성”을 제기한다. 천인합일의 문화적 전통을 자연과의 조화 위에서 구현하는 위치 설정과 건물 축조, 한국적 지형조건에 알맞게 환경적 훼손과 지형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기후조건에 적응시킨 건축공간의 형성, 화려하게 장엄을 베푼 사찰건물과는 달리 소박하고 담백하면서도, 그 속에 선비의 맑은 지조志操와 굳센 의지를 담고 있는 듯한 건축 법식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선비정신을 유형有形의 건물에 구현한 것으로서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세워진 서원은 1,000개에 가깝다. 그러나 중간에 몇 차례의 금령禁令으로 인해 300여 곳이 훼손되었고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에 의해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되었다. 이후 복설되는 곳이 적지 않으나 옛날의 모습을 유지하는 곳은 많지 않다. 그중에서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삼은 9개 서원은 훼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훼손 이전의 서원구조와 건물형태를 보존하여 문화재청에 의해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도 향사享祀를 비롯한 유림의 모임과 연수회 개최를 통해 사회인에 대한 유교적 가치관의 보급 등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9개 서원은 위에서 말한 한국 서원의 기능과 특징들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서원이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서원은 초창기 서원의 제향 의식을 그대로 온존시켜 왔고 다른 서원은 강학과 장수의 기풍을 사회인 연수를 통해 재현하기도 하며 서원건축의 우수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도 있다.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한국 서원의 진면목과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서원의 보편적 성격을 같이 지니면서도 한국 서원의 특징적인 면을 각기 대표하는 9개 서원을 연속유산으로 등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른 9개 서원의 대표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소수서원 | 1543년 건립. 한국최초의 서원으로 고려후기의 유학자 안향(安珦)을 제향 하는 사묘(祠廟)에서 서원으로 발전함. 따라서 16세기 중엽 이래 향사(享祀)를 계속해 와서 한국 서원의 제향의식(祭享儀式)과 서원에서 일상으로 행하여지는 의례를 대표적으로 전해주고 있음.

남계서원 | 1552년 건립. 유학자 정여창(鄭汝昌)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출발했으며 소재지 일대의 향촌민에 대한 교화를 담당하고,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와 흩어진 민심수습을 위한 유교윤리의 보급에 주력해 서원의 교화적 특징을 대표함.

옥산서원 | 1573년 건립. 도학자인 이언적(李彦迪)을 제향하여서 이 지역 사림의 근거지였으며 특히 이언적 생전의 터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부근에 문중마을이 크게 형성되었음.

도산서원 | 1574년 건립. 조선의 주자학을 완성한 이황(李滉)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주리설(主理說)을 기본으로 하는 영남성리학의 본산이며, 현재도 사회인 연수를 통해 유교적 가치를 보급하여 조선서원의 교육적 특징을 대표하고 있음.

필암서원 | 1590년 건립. 도학자 김인후(金麟厚)를 제향하며 호남학맥의 본산으로서 으뜸가는 서원임. 그런 만큼 호남사림 여론형성의 진원지로서 정치적으로 큰 비중 가짐.

도동서원 | 1605년 건립. 유학자 김굉필(金宏弼)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특히 자연

과 조화를 이룬 서원의 위치와 경관에서 한국 서원의 특징을 대표함.

병산서원 | 1613년 건립. 학자이며 정치가인 류성룡(柳成龍)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자연과 조화된 한국 서원 건축공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무성서원 | 1615년 건립. 일반서원과 달리 지방관에 의해 흥학(興學)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었고, 향약을 시행하며 한말 의병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음.

돈암서원 | 1634년 건립. 예학을 확립한 김장생(金長生)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예학(禮學) 논의의 산실이었으며 소장하는 문집과 예서(禮書) 책판(冊板)의 간행을 통해 호서지역 사람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보여줌.

유네스코(UNESCO)는 인류의 유산이 오랜 시간의 흐름과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 등으로 훼손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류의 문화 및 자연유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³가 있는 유산에 대해 인류가 공동으로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여, 이를 함께 보호하고자 “세계유산협약”을 1972년에 채택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세계유산협약 채택 이후 세계유산은 2012년 9월 현재 981개(문화유산 759, 자연유산 193, 복합유산 29)가 등재되어 보호 및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최근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에 이르기까지 총 10건의 세계유산

3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는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Operational Guidelines 2012. (Paragraph 49)

(문화유산 9, 자연유산 1)을 보유하고, ‘한국의 서원’을 포함한 14건의 유산들이 현재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9개 서원을 묶어 연속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협약과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OUV’의 구비와 입증에 필요하다. 이러한 입증에 필요한 조건들은 세계유산 등재기준, 진정성 및 완전성, 보호 및 관리계획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3.1 한국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OUV’에 대한 평가 기준에 있어, 신청유산이 다음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시킬 경우 세계유산위원회는 당해 유산에 OU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모두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i ~ vi 항목의 기준은 문화유산, vii ~ x 항목은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선정기준은 문화유산에 대한 항목의 기준들이며, 이중 ii, iii, iv, vi 기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해당 항목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ii | 인류의 가치가 교류된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 planning or landscape design.]

조선시대의 서원은 중국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하고,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림은 서원에서 성리학을

학습하고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 다른 조선의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립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중세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인 성리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 사회에 정착하여, 조선의 성리학이 형성되게 한 산실이었다. 조선시대의 서원에 나타난 건축과 자연과의 조화, 절제되고 검박한 형식의 건축미 등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세계관, 장수藏修 학습, 한국인의 자연관이 상호 작용하여 형성된 결과물이다. 현존하는 600여 개의 한국의 서원 중에서,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기준 iii |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것.[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has disappeared.]

조선시대의 서원은 백운동서원이 처음 건립된 이후 40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조선 사회에 정착되면서 중국과 다른 한국의 서원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양반 사립의 전인소인 교육을 맡은 학교였다는 점, 전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사립의 활동 근거지였다는 점, 문중門中 내지 동성同姓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기반이었다는 점, 지방문화센터로서의 구실을 하였다는 점, 서원이 자리한 주변 자연과 천인합일할 수 있는 산수경관을 갖춘 곳에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서원이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조영되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축공간을 형성한 것은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이 반영된 물리적 표상表象의 증거가 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문화 전통이 반영된 교육유산의 특출한 전형을 보여준다. 한국에는 현재 600여 개의 서원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증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다.

기준 iv |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이거나 경관인 것.[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으로 구성되어 사람들이 장수藏修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서원 건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서원 주위의 산수 경관과 건축이 합일할 수 있도록 경사진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원 공간을 조성하였다.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자연관은 서원이 주변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각 서원이 자리한 입지 조건에 따라 계경溪景 입지, 산경山景 입지, 강경江景 입지, 야경野景 입지로 구분되는 서원 입지와 경관의 유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곳에 자리한 서원은 건축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이라는 독특한 건축 공간형식과 배치 유형으로 조영造營되어 사람들이 서원에서 천인합일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서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 건물 배치가 주변의 자연 경관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서원 주변 자연 경관은 건축과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그 장소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주변 자연 경관과 건축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건축 유형에 속한다.

기준 vi | 탁월한 보편적 의의를 지닌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앙, 예술·문학 작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된 유산(위원회는 다른 기준과 결합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사상과 활동의 보고寶庫이다. 서원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 시설로서 이와 관계되는 많은 문집과 문헌을 남겼으며, 서적과 판본을 생산·유통·확산시키는 출판 및 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했다. 서원은

장수藏修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그 정신적인 가치와 기능 못지않게 많은 기록물을 소장하는 지식의 창고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원에 남아있는 고서古書, 고문서古文書, 목판木板 등은 당시의 서원 관리와 지적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며, 서원에 보관된 제향 물품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는 옛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서원의 장서藏書 제도 및 출판문화는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지식 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서원이 지방문화센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서원은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한국의 서원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제향祭享’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서원의 제향은 돌아가신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송유崇儒정책을 표방하던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우에 모셔진 선현의 학덕으로 그 지방의 풍속風俗과 예속禮俗의 교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향 의식을 통해 제자나 후손들은 그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들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제향 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경서經書의 강학과 선현의 제향을 통한 교육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사림들의 활동무대였다. 서원은 지역의 사림들이 모여 여론 및 공론을 결집하고, 사회적 활동을 했던 곳인 동시에 도서출판·문화예술 등 각종 사회 교화 활동이 펼쳐졌던 곳이다. 특히 역사적 의미가 깊은 향약과 향음주례가 행해진 곳, 의병의 격문과 정치적 사회 현안에 대한 사림들의 연명 상소가 작성된 곳, 다양하고 격렬한 학문 토론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이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서원에는 이러한 유교문화가 지닌 본질이 남아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한국 서원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3.2 한국 서원의 ‘진정성’ 및 ‘완전성’

세계유산 등재 시,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유산은 ‘진정성’ 및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진정성은 본래 또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지니게 되는 가치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해당 유산의 유형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유산의 속성이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학술적 차원에서 본래부터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진실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 서원은 모두 조선말 서원훼철령 때 훼철에서 제외되어 지금까지 존속된 서원으로, 인물에 대한 ‘제향’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行誼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원은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으로, 그 지역 유럽의 주도하에 제향·강학·사회교육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의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서원 건축물들과 입지, 주변 경관의 원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있어 지금도 유산의 진정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

대상 서원은 예학의 논리에 의거한 성리학적 이상세계를 실천하려 하였으며, 유교사상에 입각한 입지와 배치원리를 선택하여 서원에 구현하였다. 이러한 배치 속에 서원의 주요 기능을 구성하는 교육공간과 제향공간의 적절한 건물배치는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과 함께, 서원의 내·외부를 형성하는 장수의 공간과 유식의 공간으로 당시의 모습 그대로의 진정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완전성’은 유산이 지닌 OUV를 표현하는 특성에 대해 전체와 본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유산의 보존(Preservation)과 관계된다. 이러한 완전성은 유산의 복원(재건)에 있어 완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은 한국 유학의 발전과 정착에 공헌한 대표적 인물을 제향하고 이들의 사상을 교육 실천한 장소로, 지역 유림의 주도 하에 제향·강학·사회교육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대상 9개의 서원은 모두 한국 정부에 의해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을 구성하는 개별 건축물들과 함께 입지, 주변 경관 등의 원형 보존을 위해 서원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상 서원은 모두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서원으로 조선시대 옛 모습이 잘 남아있어 역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개발 행위의 금지와 퇴락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서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적 공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상 서원은

도산서원 향사



조선시대 서원의 기능을 충족시킨 제향공간, 강학공간, 누문공간, 지원공간, 진입공간을 구성하는 건물들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서원 건립 당시의 입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전통건축물로서의 완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가능한 보호 및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유학의 체계화된 교육기관을 상징하며 사림 집단의 도학적 학문 전통을 내재화하는 집합체로서, 성리학이 추구하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 장수의 공간과 유식의 공간이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 또한 제향의식 및 서원 관련 서적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 유·무형유산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3.3 한국 서원의 ‘보호 및 관리 계획’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해당 유산에 관한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문화유산의 OUV와 등재 당시의 진정성 및 완전성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법령, 규정, 제도, 관리 체계 등이 갖추어져야 함을 운영지침에 규정하고 이런 이유로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원 및 서원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계획(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⁴ 현재 9개 서원은 국가가 사적으로 지정하여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으나, 일부 서원에서는 진정성과 완전성의 관점에서 향후 정비되거나 원형이 회복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들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개선되고 이행될 것이다.

4 운영지침에서는 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① 법률, 규제, 계약상의 보호 대책 ②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지리적 경계 ③ 완충구역 ④ 관리계획 ⑤ 지속 가능한 사용이라는 다섯 가지의 해당 기준을 마련하였다.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2012, (II.F, Protection and Management, Paragraph 96–119.)



소수서원 전경





- ① 취한대 翠臺
- ② 백운동 경자암 白雲洞 敬字巖
- ③ 죽계 竹溪
- ④ 경림정 景濂亭
- ⑤ 성생단 省牲壇
- ⑥ 지도문
- ⑦ 명륜당 明倫堂
- ⑧ 직방재 直方齋 · 일신재 日新齋
- ⑨ 학구재 學求齋
- ⑩ 지락재 至樂齋
- ⑪ 신문 神門(내삼문 內三門)
- ⑫ 문성공묘 文成公廟
- ⑬ 장서각 藏書閣
- ⑭ 전사칭 典祀廳
- ⑮ 영정각 影幀閣
- ⑯ 고직사 庫直舍
- ⑰ 유물관
- ⑱ 중수기적비
- ⑲ 사료전시관 · 충효교육관
- ⑳ 탁청지 濯淸池

소수서원 배치도

1. 백록동과 백운동

서원은 원래 중국에서 발생한 사립학교 제도이다. 대개 8-9세기부터 그 기원을 찾지만, 본격적인 출발은 12세기의 주희朱熹(1130-1200)가 중건한 백록동서원에서부터다. 이로부터 중국에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사상의 균제성均齊性과 사대부 중심의 유교문화가 만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세우면서 주세붕周世鵬(1495-1554)은 주희의 백록동서원 중건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였다. 제도와 운영방침은 물론 서원의 이름까지 비슷한 백운동으로 하였다. 단순한 주희 숭배열, 또는 모방에서였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뒤를 이은 퇴계 이황李滉(1501-1570)에 의해 우리나라의 서원제도가 확립되고 이후 크게 발전하여, 조선시대 중기의 수준 높은 유교문화를 창출했던 사실에서 구할 수 있다.

1.1 여산과 백록동

상해의 장강구長江口에서 양자강을 거슬러 856km 오르면 중국 남동부인 강서省江西省의 구강시九江市가 나온다. 『삼국지』의 적벽대전에서 이름을 떨친 오나라 제독 주유가 근거지로 삼고 수군을 훈련시켰던 시상紫桑이 바로 여기다.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한 시간 가량 남쪽으로 달리면 한눈에 높고 수려한 큰 산을 마주하게 된다. 다가가 가만히 보면 모두 99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속에, 계곡·폭포·동굴·바위·하천이 열린 안개와 어우러진 37군데의 절과, 절벽에 새겨진 9백 개 이상의 석각石刻, 3백개의 비석을 품고 있다는 여산廬山(최고봉인 漢陽峰이 해발 1474m)이 앉아 있다. 기이하고 수려한 산수

의 형세가 천하제일이라고 중국인이 자랑하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지질공원 World Geopark으로 지정된 유명한 산이다.

사마천·도연명·이태백·백낙천·소동파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인물을 포함해서, 무려 1천5백 명의 시인 묵객이 이 산에 노니면서 4천여 수의 시문을 남겼다.

바로 이러한 명산의 오로봉五老峰 아래 당나라 때 이발李渤이란 학자가 숨어 살면서 흰 사슴을 기르고 후생을 가르쳤다고 한다(9세기 초). 후일 이발은 진면목을 보려했는지 이 산을 벗어났지만, 흰 사슴과 관련해 백록동이란 땅 이름을 남겼다. 백여 년이 지나자 그의 옛터인 백록동에 여산국학이란 학교가 세워졌고, 다시 오십 년 후 백록동으로 이름한 서원이 섰다. 이백 년이 흐른 1179년, 주희가 인근 남강군의 태수로 부임하였다. 그는 황폐해진 백록동의 옛 자취를 찾아보고 관官의 힘을 빌려 서원을 중창하고 스스로 동주洞主가 되었다. 나이 막 50에 들어서면서 그 관심이 사서학四書學에서 오경五經으로 옮겨지던 때였다. 그는 백록동서원에서 자신이 지은 『중용장구』를 직접 강학하는가 하면, 육구연·여조겸 같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학자들을 초빙해 강의와 토론을 벌였다. 무엇보다도 「백록동서원학규」를 제정하여 오륜을 기본으로 하는 서원교육의 방향을 천명하고, 유생들이 수행해야 할 ‘궁리窮理’와 ‘독행篤行’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궁리’란 인성人性과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는 사유의 과정으로 이학理學을 의미한다. 반면 ‘독행’은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기는 일이었다.

주희의 이런 활동으로 백록동서원의 존재는 중국 천하에 널리 알려졌고, 주자학이 점차 독보적 자리를 잡아가게 되자 서원은 마침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그래서 명나라 때는 천하에 이름난 서원만 해도 3백 개 소가 손꼽힐 정도였다. 최근 중국 서원연구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역사상 건립되었던 서원의 숫자는 7천여 개 소를 헤아린다고 한다.

800년간 강학이 지속되었다는 백록동서원도 서구적 가치가 들어오고 유학이 쇠퇴하는 세월의 바람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는 그 흔적마저 지우려 하였다. 최근 들어 겨우 부분적으로 복원된 오늘날 여산의 백록

동서원은, 오직 공리와 독행을 주장했던 주희의 영혼이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숨 쉬고 있을 뿐이다.

1.2 소백산과 백운동

자동차로 죽령터널을 지나면 먼저 만나는 도시가 풍기다. 뒷면으로 웅장해 보이는 육산이 도시를 든든히 지키듯 감싸고 있다. 조선 선조 때의 술사術士인 남사고南師古가 이 산을 보고는 갑자기 말에서 내려 넙죽 절하며 “이 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 했다는 소백산이다.

소백산은 백두대간의 이 큰 마디인 태백산에서 구부러지면서 처음으로 크게 솟아오른 산이다. 높이는 모산인 태백산(1567m)에 살짝 양보하여 정상이라는 비로봉이 1439m이다. 비로봉 좌우로 국망봉(1421m), 연화봉(1394m)이 자리해 산세의 웅장함을 더해 준다. 중국 여산의 오로봉이 유명하다지만 이 세 봉우리를 거느린 소백산 역시 이름값을 한다.

이 비로봉의 줄기가 아래로 내려 뺨어 땅에 닿는 곳에 사람 사는 동네가 있다. 바로 백운동이다. 읍지에 보면 옛날에는 반평동般平洞이었다고 한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소백산이 높아 항상 산허리나 기슭에 흰 구름이 안개 처럼 머물러서 진작부터 백운이란 이름도 있어 왔다. 주세붕은 『죽계지竹溪志』에서 자신이 동네이름을 백운동으로 짓고 처음으로 서원을 세우면서 백운동이란 이름을 썼다고 밝혔다.

여산 오로봉 아래의 백록동이 선가禪家적 배경 속에 흰 사슴을 데리고 노닐던 은자隱者의 동네에서 유가儒家 주자학의 발흥지로 변하였다면, 순흥 백운동은 비로봉의 신령한 정기를 받은 불국토佛國土적인 동네에서 해동주자학의 출발지로 자리했다고 하겠다.

1.3 죽계수와 순흥 안씨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계곡의 물이 풍부한 법이다. 물이 없는 산은 수려하지 않고 봉우리가 많지 않으면 물이 맑지 못하다. 산이 꺾여서 물과 함께 어우러지면 쏟아져 내리는 폭포가 되고 그 밑에 하얀 물보라 일으키는 깊은 웅덩이와 ‘소沼’가 생기게 마련이다. 여산은 그리 높은 산은 아니로되 여산폭포·삼첩천·범춘천梵春泉·대구폭포 같은 유명한 폭포를 가졌다.

42

2008년 북경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역사의 웅장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이태백의 「여산폭포를 바라보며望廬山瀑布」에서

飛流直下三千尺 나르듯 세차게 곧바로 흘러 내리는 물 삼천 자나 되니
疑是銀河落九天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져 내린 것이나 아닐까

라고 한 부분이 여산폭포의 형상을 가장 극적으로 그려 내었다고 한다.

소백산도 여산에 못지않게 웅장한 모습이지만 산의 폭이 깊고 넓지 않아서인지 천하에 이름을 드러내는 유명한 폭포는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름철에 보면 30여 m에 이르는 물줄기가 장관을 이루는 희방폭포를 위시해 초암·용추·옥류천玉溜川·석문폭포·용담·곡담·구만·백자담柏子潭·목욕담 같은 웅덩이[沼]가 있고, 비로·국망·연화의 세 봉우리에서 발원한 죽계·봉계·단곡계·우계 등 10여 곳의 시내가 남한강과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골이 깊어 수량이 풍부한데다 골짜기를 휘감아 돌게 하는 암반이 좋았던 죽계는 예부터 천석을 사랑하는 사군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맑은 날에는 서울을 바라볼 수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국망봉 줄기를 타고 내려오면 석륵암石崑庵 터가 나온다. 다시 내려가면 비로봉 아래에서 발원해 작은 폭포를 2-3개 만들면서 월전 계곡을 거쳐 온 물줄기가 석륵암 골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과 합치는 곳에 초암사草庵寺(그런데 이름과 달리 절은 온통 기와로 되어 있다)가 있다.

여기서부터는 수량이 풍부해져 바위 사이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가 산을 울리는 죽계가 시작된다. 태백산 황지黃池, 문경의 초점草岾과 함께 낙동강 수계의 3대 발원지의 하나이며, 아홉 구비마다 비경을 가졌다는 바로 그 죽계이다. 물과 바위로 빼어난 풍치를 이루니 만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예부터 있었고 남긴 시문도 적지 않다.

고려 말의 안축이 죽계의 경치를 경기체가 형식으로 노래한 「죽계별곡」을 지었고, 조선 중기의 풍기군수이던 주세붕과 이황은 몇 년 차이로 소백산을 오르면서 경치가 뛰어난 곳을 만나면 문득 시를 읊고 새로 이름을 짓기도 하였다. 주세붕이 산행 중에 초암사에 유숙하면서 지은 시[宿小白山草庵寺] 한 수를 보자.

郡樓三載望崢嶸	읍내에 있는 누각에서 삼 년간이나 높은 산 바라보기만 했었지
試躡煙霞慰暮齡	비로소 연기서린 노을에 올라 늙은이 마음 흡족하도다
山立佛身淸淨色	산이 부처님 몸처럼 우뚝 서서 청정한 색을 띠고 있고
溪翻僧偈廣長聲	계곡 물 뒤집히는 소리와 스님의 게송이 넓고 길게 울려 퍼진다
臥隣河漢星疑動	은하수 이웃하고 누우니 별이 움직이는가
洗心塵埃語自淸	마음은 속세의 때를 씻어 말조차 맑아지네
莫說相酬是求利	말하지 말라.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이로움을 구함이라고는
浮生隨處有人情	뜬구름 같은 인생 가는 곳마다 사람 인정 가득하다네.

여산폭포에 대해 길이가 삼천척이라는 등 은하수가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 식의 호방한 기분을 드러내어 경관 자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던 이태백의 시를 읽을 때 느꼈던 감흥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주세붕은 자연 그대로를 즐기기보다는 자연을 통해 유가적인 마음의 수양과 깨우침을 추구하고 있다. 이태백이 자연을 찬미하는 시인이라면 주세붕은 비록

불교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으나 천인합일을 지향하는 성리학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주세붕의 뒤를 이어 소백산 탐방에 나선 이황 또한 몇 곳을 시문으로 읊었고, 주세붕이 붙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새로운 명칭을 붙이기도 했다. 그의 소백산을 유람한 글[遊小白山錄]을 잠시 보자.

44

초암사의 서쪽에 바위가 높이 솟아 있고 그 밑에 맑은 물이 폭포를 이루며 내려오다가 못을 만들었다. 그 바위 위쪽은 제법 평평해서 여러 사람이 둘러앉을 만하다. 거기에 앉아 남쪽의 산문山門을 바라보며 맑은 물소리 들으니 참으로 비할 데 없는 운치가 있다. 몇 년 전에 주경유(세붕)께서 이곳을 백운대라 했는데 이 부근에 이미 백운동 백운암이 있으므로 이름이 서로 섞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백’자를 ‘청’자로 고치어 청운대靑雲臺로 불러볼까 한다.

오늘날 초암사 밑에서 시작되는 이른바 죽계9곡의 금당반석 아래쪽에 2곡이라 써 붙인 큰 바위가 있고 거기에 청운대라고 새긴 글씨가 보인다. 후인들은 이황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했는가 보다.

이황의 소백산 유람기에는 죽계라는 명칭의 유래에 관한 중요한 시사를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석륵암과 초암사 중간쯤에 옛날에 참대苦竹가 촘촘히 자생하였는데 이때는 뿌리만 남았다고 하면서 산승의 말이라 하여 옛날에는 온 산에 다 뻗뻗이 났는데 지난 신축년(1541년, 중종 36)에 홀연히 열매를 맺더니 그 해에 다 말라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소백산 중턱에 대나무가 밀생했다가 한꺼번에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도 신기하지만, 죽계란 말은 바로 여기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소백산이 높고 웅장하며 죽계수 또한 풍부한 수량과 빼어난 경관을 가졌던 만큼 산기슭마다에는 일찍부터 웅기중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생겼다. 더구나 이곳의 인심이 순후하고 땅의 형세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모르나 참여가들이 난세에 가히 피난할만한 심승지+勝地 중의 한 곳으로 꼽으면서 객인이 물리게 되어 어느덧 순흥부 안에 131개의 크고 작은 촌락이 들어서게 된다.

그중에서도 죽계수가 평지를 만나게 되는 순흥 읍치 일대는 고려시대 순흥안씨 일족이 이룬 시기에 터전을 마련해 번성한 곳이었다.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고려 후기의 문풍 진작에 힘쓴 공으로 인해 공자를 제향하는 문묘에 종향된 안향이 먼저 있다. 다음으로 순흥의 사현정四賢井이란 우물에 이름을 올렸고, 소백산 죽계수 일대의 수려한 경치를 노래한 「죽계별곡」으로 국문학사의 한 봉우리를 차지한 안축과 안보, 안준 및 안석의 4부자도 있다.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소백산을 올라가 보고 죽계수를 따라 순흥의 옛 터전을 찾으려 주세봉은 문득 400년 전 주자가 남강군 태수가 되어 여산의 백록동을 찾았던 고사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풍광이 좋은 여산 아래 백록동은 이발이 숨어 살며 학문을 익히던 옛터였다. 태수로 부임한 주희는 그 옛터에 서원을 재건하여 주자학을 형성하고 전파시켰다. 웅장한 소백산과 죽계수가 흐르는 순흥 역시 주자학을 가져온 안향이 젊은 시절 학문을 익히던 숙수사宿水寺 터가 있고, 자신이 이제 군수로 부임한 곳이었다. 중국에서 새로 도입된 『주자대전』을 통해 주자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서 이를 당시의 사림사회에 정착시키는데 강한 열망을 가졌던 인물이 주세봉이다. 따라서 이런 그가 마치 주희가 남강군 태수로 부임해 백록동서원을 세웠던 것처럼, 자신도 부임한 풍기에 주자학의 본산으로서 서원을 세워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었다.

숙수사 절터 위에 안향을 제향하는 사묘와 서원을 세우고 동네 이름마저 백록동과 흡사한 백운동으로 지으면서 서원까지 백운동으로 명명하게 된 것은, 물론 다른 요인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주희를 닮고자 한 주세봉의 속내가 밖으로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가 백운동서원을 세우고 나서 주희의 도학이 동쪽의 우리나라로 온 것을 기리기 위해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으로 지은 「도동곡九장道東曲九章」의

맨 끝 구절은 의미심장하다.

삼한 천만년에 참된 유학자를 내리시니 소백산이 여산이요
죽계수가 염수(여산廬山에서 발원한 계천溪川)로다.
학교를 일으키고 도를 보위함은 작은 일이겠지만
주자를 높이 모신 그 공이 크시어 우리나라에도 도가 전해졌으니
그 광경 어떠하오.

46

겉으로 표현은 절제하고 있지만 동방의 주자로 자부하며 그 사업을 펴고 싶어
하는 주세붕의 마음이 글 속에 넘쳐나고 있다.



소수서원 옆의 죽계천



소수서원 문성공묘

2. 문성공묘로부터 소수서원으로

소수서원은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에 위치한다. 역사를 통해 배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서 주세붕이 풍기에 세웠다는 백운동(사액받기 이전의 이름)서원이란 상식과는 지명이 다르다.

순흥은 원래 작은 고을로 때로 안동부에 속하기도 하였으나, 고려 말 임금들의 태가 안치되면서 현으로 독립되고, 다시 승격해 순흥부란 큰 고을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 세조 때 부사이던 이보흠이 이곳에 귀양 와 있던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과 함께 상왕(후일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면서, 순흥부가 해체되어 인근 풍기군 영천군(오늘의 영주) 등의 고을에 흡수됨으로써 행정구역에서 소멸되었다. 후일 1683년(숙종 9) 순흥부로 복설되었다가 현으로 바뀌고 1914년 영주·풍기·순흥이 영주군으로 통합될 때 순흥면이 되고 1995년 영주시로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세붕이 풍기군수로 부임해 백운동서원을 세우던 시기는 그 지역이 풍기군의 순흥면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행정명칭에 따라 풍기 백운동서원이란 역사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다.

소수서원을 찾으려면 일단 풍기까지 가야 한다. 여기서 931번 지방도를 따라 해동 화엄의 종찰이며 무량수전으로 유명한 부석사 쪽 방향으로 7km 정도 가면 순흥면 소재지가 나오고 얼마가지 않아 오른 쪽에 우거진 숲이 나타나는데 바로 입구이다. 주차장을 지나 솔밭 길을 지나면 사찰 입구에서 흔히 보는 3.6m 정도 높이의 돌기둥 한 쌍이 나타난다. 보물 제59호 숙수사지 당간지주다. 이윽고 경림정이란 현판이 붙은 정자 옆으로 해서 1칸으로 된 지도문으로 들어서면 문성공묘와 명륜당 및 직방재·일신재 등의 건물에 국보 제111호인

회현 안향(安珦) 영정, 보물 제485호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大成至聖文宣王殿座圖), 보물 제717호인 주세붕 영정 등의 문화재를 보유한 사적 제55호 소수서원이 바로 눈앞에 다가 온다.

2.1 주세붕의 문성공묘 건립과 백운동서원 창건

50

백운동서원은 주세붕(1495-1554)이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세웠다. 주세붕은 경상도 칠원(오늘날의 함안군 칠원면) 출신으로 27세에 급제하여 언관과 지방 관직을 거쳐 50대 이후 승지, 대사성 등을 역임하고 지중추부사에까지 올랐다. 을사사화 이후 권신들과 가까웠다가 도학을 깊이 궁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실록(實錄)』의 비평이 있기는 하지만, 상례·제례를 오로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랐다는 데서 보듯이 주자학의 실천에 돈독해 모범이 되었다는 이항의 평가대로 당대 사람의 선구자였다.

그는 46세 되던 1541년(중종 36) 5월 풍기군수로 임명되었다. 지방관으로 부임하면 먼저 민정 파악을 위해 관내를 순행하기 마련이다. 주세붕도 부임한 3일 만에 순흥폐부의 옛터를 찾았다. 우선 그의 눈에 띈 것은 퇴락한 순흥향교였다. 1군 1교의 원칙에 따라 옛날의 순흥부이던 시절 세워졌으나 부의 폐지에 따라 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죽계를 따라 내려와 순흥 안씨들의 거주지를 거쳐 숙수사 옛터에 이르렀다.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졌으며, 고려 후기에 안향과 그 아들 손자까지 독서하였던 절이다. 주세붕이 왔을 때는 이미 폐사되어 절터만 남아 있었다.

이런 유풍(儒風)의 퇴락상은 흥학을 책임진 수령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주자학을 들여온 안향(安珦)(1243-1306)의 자취가 인멸되고 있는 현장은 주자학의 전도자로 자임하는 주세붕에게 충격이었다. 여기서 그는 향교의 중건과 안향을 봉향하는 사묘 건립을 계획하였다. 사당은 국가에 충절을 지킨 인물에게 그 공을 기리고 보답한다는 뜻에서 고려시대 이래 세워져왔다. 안향은 이미 공자를 제향하는 문묘에 들어가 있

어 주희와 더불어 공자 제자의 반열에는 섰으나, 특히 주자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공을 크게 드러내고 이에 대해 보답한다는 면에서 별도의 사묘(사당祠堂·사우祠宇)가 충절忠節적 성격이라면 사당祠廟은 사문斯文과 관련된 의미가 강함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그 목적이 향촌사회에 주자학을 천명해 보급 확산시키려는데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백운동서원 창건의 출발점이 되는 문성공(안향)묘의 건립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향교의 중건과 사묘의 건립은 그러나 군수가 마음먹었다 하여 바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건물을 세우는 데 상당한 인력과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개 군의 물력이 넉넉하지도 않지만, 계속되는 흉년으로 민생이 곤궁에 처해있는 상황이었다. 백성을 배부르게 한 뒤에 가르쳐야 한다[養民然後教民]는 옛말대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 당장 급하였다. 이 지역의 여론은 향교의 중건은 혹 그럴 수 있다 해도 사묘와 서원까지 세우는 것은 지나치다 하여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주세붕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먼저 주희가 백록동서원을 세웠던 예를 끌어왔다. 그 때 송은 금의 침입으로 천하가 피비린내로 가득했고, 주희가 태수로 있던 남강군南康郡 일대는 흉년이 계속 들어 벼슬을 팔아 마련한 곡식으로 백성의 주린 배를 겨우 채워주던 위기였다. 그럼에도 주희는 백록동을 위시한 곳곳에 서원과 사당을 세웠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주세붕은 자신의 향교중건과 사묘건립을 변호하였다.

하늘이 못 백성을 나움에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는 가르침(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가르침이 없다면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여서 …… 삼강이 무너져 인류가 멸망한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무릇 가르침은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에서 비롯되므로 사묘를 세워 덕 있는 이를 숭상하고 서원을 세워 배움을 도탑게 하는 법이니 진실로 교육은 난리를 막고 굶주림을 구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다. 아! 주자께서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죽계는 바로 문성공(안향)의 고향이다. 가르침을

베풀려면 반드시 문성공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문성공 사묘부터 세우고자 한다)

52

한마디로 주희의 말씀에 따라 주자학 교육을 펴기 위한 첫 조치로 안향의 사묘 건립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주세붕의 주희에 대한 확신과 그 학문인 주자학의 보급 확산을 바라는 열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주세붕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을 비롯한 당대 사림의 지도자 급 인물에게서 공통적이었다. 몇 년 뒤 이황이 사액을 요구하고 서원보급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주세붕은 우선 퇴락한 향교의 중건부터 착수하였다. 감사의 허락을 받아 입지 조건이 더 나은 곳으로 이건하기로 하고 목재를 준비하고 기와를 구웠다. 이때를 즈음하여 문성공묘를 세우기 위한 터를 닦은 것으로 보아 실은 건축자재의 확보에 더 뜻을 두었다고 할 것이다. 이듬해인 1543년(중종 38) 봄에 향교 이건이 끝났다. 이어 문성공묘 건립이 시작되고 한 달 후 서원건물이 착공되었다. 이렇게 공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향교 이건 때 남겨둔 재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의 영남감사이던 이언적과 황빈黃彬이라는 풍기선비의 지원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언적은 조선에 들어와 처음으로 주자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 했다고 이황에 의해 높임을 받아 후일 문묘에 종사되었던 회재(朱熹의 호인 晦庵에서 따와 晦齋라 하였음) 그 사람이었다. 그런 인물이니 만큼 주세붕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소금과 미역을 후하게 보조하여 건립비용에 충당하게 하였다. 특히 도를 대표하는 감사의 이런 지원은 도내에 문성공사묘·서원건립을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묘·원 건립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황빈은 풍기일대에 세거하는 창원황씨 집안의 인물로서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듯, 향교 이건 때 15석, 묘원을 위해서는 75석이란 많은 곡식을 기부하였다.

1543년(중종 38) 2월 문성공사묘가 먼저 준공되었다. 서원 건물이 완공된 8월에 바로 회현영정이 봉안되었다. 고려후기에 원나라 화공에 의해 그려졌다는 안향의 이 초상화는 본래 순흥에 보존되었는데 상왕복위사건으로 순흥부가 폐



소수서원 문성공 위패



안향 영정(국보 제111호)

지되면서 서울의 종손 집으로 옮겨 갔었다. 이때에 이르러 문성공사묘가 세워진다는 소문을 들은 11대 주손曹孫 안정安斑이 이 영정을 다시 모셔 내려와 임시로 부근 정자에 보관해 왔던 것이다. 주세봉의 계산에 의하면 안향이 죽은 지 237년 되는 해에 사묘가 세워졌고, 순흥을 떠난 지 87년 만에 영정이 고향에 다시 모셔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영정은 봉안된 지 십여 년만인 1559년(명종 14) 넓고 훼손이 심하다 하여, 조정의 명으로 화공에 의해 개수 이모移模되었다. 오늘날 소수서원이 자랑하는 국보 제111호인 회헌영정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서원의 제향공간인 사묘에는 보통 검게 옷칠한 궤(독櫃이라고 부름) 속에 종향한 분의 위패[神主]를 봉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문성공사묘에는 안향의 신주가 아닌 영정을 모셨을까? 그것은 가묘家廟에 이미 신주를 모셨는데 또 다른 사묘에 신주를 봉안하면 신주가 둘이 되는 모순 때문이었다고 한다. 중국도 그래서 문묘에 공자 위패가 아닌 흙으로 빚은 소장塑像이나 영정을 봉안하다가 명 가정嘉靖(1522-1566) 연간에야 위패로 바꾸었다. 처음

에 회현영정이 봉안된 이유는 이러한 데 있었다. 다만 현재는 위패로 되어 있다. 후일 1684년(숙종 10) 순흥부 복설에 따른 부담증가에 불만을 가진 주민 일부가 새로 모사된 회현영정을 들어내어 훼손한 사건 이후 위패로 대체하였던 것이다.

문성공 사묘의 준공과 함께 착수한 서원 건물이 그해 8월에 완공되었다. 주세봉은 백운동이란 동네 이름을 따서 서원의 명칭으로 삼았다. 이때 세워진 건물의 규모가 어떠하였는지 자세하게 전해주는 문헌은 없다. 다만 뒤에 나오는 안현이 쓴 「사문입의(斯文立議)」에 사묘가 3칸에 지나지 않고 서원 또한 그 비슷하며 딸린 방만 조금 더 있을 뿐이라고 한 기록으로 보면 지금의 명륜당과 동·서재 및 서고 등 합해 너댓 채에 10여 칸 정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여도 서원은 사묘와 분리되어 유생의 학습장소로 인식되었다. 그러기에 사묘를 세우고 이어서 서원을 두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의 이해와는 다르다. 보통 서원은 강학 장소로서 강당, 동·서재와 제향공간으로서의 사묘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서원 역시 그러하다. 강학과 제향공간을 함께 아우른 서원제도의 정형화는 뒤에 이황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문성공 사묘와 특히 백운동서원이 세워지자 유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우선 그들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도서의 비치가 시급하였다. 다행히 건물터를 조성하는 중에 땅 속에서 낫쇠 120근을 습득하였다. 기록에는 낫쇠라 하였지만 원래 숙수사가 있었던 곳이니만큼 불상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이 구리를 서울로 보내 팔아서 서적을 구입할 수 있었다. 여기에 독지가의 기증과 주세봉 자신의 장서를 합하여 500여 권의 도서를 확보하였다. 다음은 서원을 찾아 온 유생을 공계(供饋)하는 문제였다. 주세봉은 서원에 토지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밥을 싸올만한 자는 밥이 있어도 배우러 오지 않고, 취학할만한 사람은 뜻이 있어도 먹을 밥이 없다면 우리 학문은 어찌 될 것인가. 실로 서원에 학전(學田)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고 하였다.

재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마련은 쉽지 않았다. 주세봉이 관청소속의 땅으로

서 마련한 위전位田은 논·밭 합해서 채 3결이 못 되었다. 그 수입이 얼마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부족하였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앞서 황빈이 기증한 75석 중 쓰고 남은 40석을 보미寶米로 삼아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유생공궐에 보태게 하였다.

문성공 영정을 봉안하고 서원의 규모도 어느 정도 갖추어지자 주세붕은 이 지역 출신의 인물인 안축安軸(1287-1348)과 안보安輔(1302-1357) 형제를 배향하였다. 두 사람 모두 안향에게는 족손 뻘로서 고려 말에 원나라의 과거에 급제하여 문학으로 이름을 날렸고, 각기 문하찬성사와 정당문학에까지 올랐다. 순흥 읍내에는 이들 부자 형제가 마셨다는 우물이 있었으며 주세붕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사헌정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후일의 예로 보면 인물을 추가로 입향하려면 사람의 공론을 거쳐야 하였다. 초창기여서 그런지 이때는 그런 의문 없이 문성공 영정을 봉안한지 1년 후인 1543년(중종 38) 9월 추배가 이루어졌다. 주세붕은 이처럼 문성공사묘와 백운동서원을 창건하고 장사와 공궐재원을 마련하는 등 규모를 갖추는데 힘쓰다가 부임한 지 5년 쯤 되던 해에 성균관사성으로 벼슬이 갈리어 풍기를 떠났다. 이임의 아쉬움 때문인지 그는 서원 입구 죽계 옆의 바위에 자신이 학문의 근본으로 삼는 “경敬”자를 새기고, 다시 경렴정이란 정자를 지어 유생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못 다한 서원운영의 기반구축과 국가로부터의 공인을 받는 과제는 뒤이어 영남감사로 부임한 안현 및 군수 이황에 의해 마무리된다.

2.2 서원운영의 기반 구축

안현安瑗(1501-1560)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것은 명종이 왕위에 오른 1546년(명종 1) 2월이었다. 언관, 승지 등의 관직을 거쳐 이조참의에서 영남감사로 나오게 된 그는, 관내 순찰차 풍기에 이른 길에 순흥의 문성공묘를 참배하였다. 풍화의 책임을 맡은 감사로서 선현의 사당을 찾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안향의 11대손(영정을 보관해 온 주손曹孫 안정安珽과는

10촌 형제)이어서 조상의 사당을 찾아 인사드린다는 의미도 있었다.

사실 주세붕이 문성공묘를 건립할 때 서울에 있는 안향 후손들과는 사전 교감이 있었던 듯하다. 주세붕이 지은 『죽계지』에는 안정·안위安瑋·안현 등 서울 사는 후손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안향 영정의 봉안과 서원에 비치할 서적 구입을 부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승지로 있던 안현이 주세붕에게 보낸 편지에는 주세붕이 명명한 백운동이란 이름이 몹시 좋으므로 강당 이름까지 지어서 알려주면 중국에서 큰 글씨를 구하여 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집안에서 성주城主(주세붕)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후손을 대표해 고마워하는 뜻을 전하였다.

이때가 1543년(중종 38)이다. 2년 후 주세붕이 풍기를 떠나 내직으로 들어가고 6개월 후인 1546년(명종 1)에 안현이 이조참의란 요직에서 영남감사로 부임한다. 그리고 문성공묘를 참배하고 서원운영을 위한 제반규정과 재정적인 기초를 확립해 놓는다. 전후의 일이 너무 공교히도 착착 맞아 들어가 안현이 영남감사로 나온 것은 조정의 처사라기보다는 애초부터 그가 그런 의도 하에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안현은 우선 감사로서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경상도 내의 각 고을에 관문을 발송하고 서원운영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현재 『소수서원등록』 속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백운동서원의 추가조성과 독서하는 유생들의 평소의 공궤에 필요한 잡무를 분배할 때의 공문등록[白雲洞書院加造成及讀書儒生常養雜物分定 行移謄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서원의 대청 등을 더 늘리고 6칸의 전사청典祀廳과 유생이 거처하는 방 및 제기고祭器庫를 새로 조성하며 각 건물에 기와를 더 덮게 하였다. 주세붕에 의해 십 수 칸에 불과하던 서원 건물은 문성공묘를 제외하고도 근 30칸에 이르는 학교로서의 모습을 비로소 갖추게 되었다.

이어 각 고을의 노비 12구를 차출하고 풍기지역의 양인 4-5명을 관리인으로 지정, 군역을 면제하며 승려로서 환속한 자를 서원에 배정해 사역인력으로 삼게 하였다. 또 서원 부근의 땅 30결을 지정하여 이를 경작하는 자들에게 잡역



주세붕의 「죽계지」

을 면제하는 대신 서원의 땀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유생에 대한 지원 조치로서 반찬 마련을 위해 해안지역의 물고기 잡는 틀 3곳과 소금 굽는 곳 2곳의 산물을 바치게 하고 종이·붓·먹·기름 같은 문방구류는 각 고을에 적정 수량을 분배하여 차질 없이 조달하게 하였다. 다만 토지의 마련은 감사로서도 여의치 않았던 듯 논밭 합하여 40부 정도를 매입하는데 그쳤다.

안현은 임기가 차서 서울로 올라갈 때 이러한 조치를 영속화하며 서원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 전 사간 황효공, 도사 정준, 군수 유경장, 전 정랑 안공신 그리고 차사원 황준량 등의 진신들과 더불어 서원의 운영 전반을 규정한 「사문입의」를 제정하였다. 전문 19개 조로 된 그 내용은 서원 유생의 자격과 정원(10명), 공궤절차, 입원유생이 지켜야 할 규율, 원장의 임무 등 학사운영과 앞에서 구획한 현물 중심의 서원재정에 관한 것이었다.

자칫하면 1개 군수의 교화와 흥학을 위한 시책으로서 끝났을지도 모를 문성공 묘 백운동서원의 건립이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가 되어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경상도관찰사로 온 후손 안현에 의한 거도적인 지원책과 주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2.3 서원정비와 소수서원의 현판사액

창건된 지 8년째 되는 해인 1550년(명종 5) 2월 백운동서원은 국가로부터 소수서원이란 사액을 받게 된다. 풍기고을의 문성공묘에 부설된 백운동서원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나라 안에서 최초로 사액을 받은 소수서원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의미는 향촌사림의 근거지 확보 노력이 서원형태로 국가에 의해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사실 그동안 사림은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활동 근거지를 마련하려고 다각적으로 움직여왔다. 성종 때의 유향소 복립이나 연산군 때의 사마소 설치 운동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를 사림세력의 정치 기반구축으로 의심하는 훈구 외척들의 방해로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이러던 국가가 서원에 대해 사액을 내린 것이다. 사림의 향촌활동을 정식으로 공인했다는 면에서 이 사액 조치는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미를 지닌 소수서원의 사액을 조정으로부터 끌어낸 인물이 풍기군수이던 퇴계 이황(1501-1570)이었다. 그는 1548년(명종 3) 11월 단양군수에서 풍기군수로 전보되었다. 그의 형 이해李瀼가 충청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자학에 대한 소양이 깊은 이황이 관내에 있는 순흥의 백운동서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였다.

사실 주세붕이 문성공묘와 백운동서원을 창건할 때 이황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문인으로 풍기출신인 황준량을 통해서였다. 그때 이황과 황준량은 서원 창건에는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도 안향을 도통道統에 바로 연결 짓는 것과 『죽계지』 속에 주희의 글을 함께 넣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주세붕에게 그런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황이 서원에 대해 새삼 주목하게 된 것은 명종 초의 계속된 사회士禍로



소수서원 현판

인해 자신의 정치적 자세를 전환시키면서였다. 그도 처음에는 조광조 등의 사류들과 마찬가지로 군주를 통한 이상적인 정치의 달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여파가 자신에게까지 직접 미치는 상황을 겪으면서 그는 정치보다는 학문의 연구와 교화, 특히 사림에 의한 향촌사회의 교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삼대三代를 불러올 수 있다는 쪽으로 자세를 돌리게 된다. 사림을 향촌교화의 역군으로 삼기 위해서는 주자학에 대한 철저한 이념교육과 단련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백록동서원을 통해 주희가 널리 보급하였던 서원에 그가 주목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풍기군수에 임명된 것이 바로 이런 때였다. 그는 우선 서원에 자주 들러 제생들과 함께 주자학을 강론하며 그들을 격려하였다. 또 봄·가을의 향사 제도를 개정하고 경령정에서 죽계를 건너 마주보는 곳에 취한대를 세우는 등 서원정비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런 지방관의 흥학적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 서원이 조선사회에 정착되고 보급되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서원에 대한 국가의 공인과 장려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황은 그 논리를 다음과 같이 폈다.

즉 당시는 관학제도가 이미 무너져버려서 선비의 습속이 쇠퇴의 극에 달했는데, 이를 구제할 방도는 오직 서원밖에 없다고 하였다. 천만 다행으로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세워 모범을 보였으나, 이는 일개 군수의 행위에 불과할 뿐으로

마치 근원 없는 물이 아침에 가득 찼다가 저녁에는 말라버리는 것처럼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보았다. “가르침이란 반드시 위에서부터 말미암아 아래에 이르게 해야[敎必由於上而達於下] 근본이 있어 멀고 오래가는 법”이라 하므로 중국 송나라의 고사에 따라 현판을 내려주시고[賜額] 서적과 아울러 토지와 노비도 지급해 주시기를 청하는 바라 하였다.

이황은 이러한 요구를 조정에 바로 청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영남감사 심통원 沈通源(1499-1572)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 그의 판단 하에 임금께 말씀드려 주기를 희망하였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잠재되어 있다.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사회가 계속되는 불안한 상태였고 사림의 움직임에 외척과 권신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사림탄압의 또 하나의 구실이 될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심통원은 왕비의 조부로 좌의정으로 있던 심연원의 동생이며 정계의 실력자였다. 그의 동조를 받아 청하면 그런 의심을 받지 않고 수월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과연 조정은 예조의 건의와 삼정승의 찬동으로 사액하기로 결정하였다. 1550년(명종 5) 4월 신광한이 지은 「소수서원기」와 함께 소수서원의 현판이 내려왔다. 그동안 반세기 가까이 사림의 향촌활동을 위협시하여 억압해오던 금제가 공식적으로 철폐되는 순간이었다. 이황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로 돌아갔지만, 이 현판은 현재 소수서원의 명륜당 안에 걸려서 그때처럼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바로 그 빛으로 서원은 이후의 조선사회에서 크게 발전하고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단순히 특정한 인물을 제향하는 사묘에 부설된 학습장소로서의 서원이 아니라, 제향공간을 부속시설로 갖춘 유생의 강학과 장수藏修를 위한 장소로서 서원이 국가 공인 하에 발전하고 보급되는 단서는 여기서 열리게 되었다. 이황은 비단 주자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조선적 성리학 체계의 수립에 토대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사림의 시대에서 그 사림의 활동무대로서 서원의 제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4 소수서원이 걸어온 길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은 소수서원의 존재는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함양, 영천 등에 남계·임고서원이 세워지고 소수서원의 예에 따라 사액을 받았으며, 명종 연간에 20여 곳의 서원건립을 보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소수서원을 찾는 유생의 발길이 잦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입원유생의 명단을 보면 영남 내의 각 고을들은 물론 서울·충청·전라·강원·경기에서 온 유생도 적지 않다. 소수서원이 초창기 서원의 대표적 존재였음을 잘 말해준다.

1556년(명종 11)에 발생한 소수서원 소속 토지문제를 놓고 인근의 성혈사聖穴寺와 벌린 분쟁은 이 시기 소수서원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왕실의 재정을 맡은 내수사가 관련되었다는 혐의가 있기는 하나, 군수 한기가 앞서 주세붕이 서원 토지로 제공하였던 속공전屬公田을 성혈사로 돌려주게 했다가 조정의 조사를 받고 파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소수서원 내부에서 운영을 맡은 유사 김중문과 유생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 1년 가까이 유생들이 서원을 비우는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된 요인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주세붕을 도와 서원 창건에 실무를 맡았던 김중문이 순흥지역의 안씨 등 토착 사족의 지지를 받았던 반면, 그와 대립한 유생들이 퇴계문인이 중심이 된 타지 출신이었던 것을 보면, 서원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에 배경이 있지 않으나 생각된다.

소수서원의 위상은 선조 이후 영남 내에 역동·도산·여강·옥산과 같은 유력한 서원이 연이어 건립되고 또 서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그 영향력이 전만큼 못하게 된다. 그것은 입원유생의 수가 급감하고 지역도 풍기와 인근 고을에 국한되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다만 1633년(인조 11)에 주세붕을 문성공묘에 추배할 때 영남 내 11개 고을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 건재를 드러내었다. 한때 부진하던 소수서원은 영조 대에 들어와 거접居接·거재居齋·강회 개최와 백일장·순제旬製 등 과거 위주의 학습활동을 벌이면서 다시 부상한다. 1760년

(영조 36)의 거재에는 110명의 유생이 참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다른 서원들이 장수藏修를 표방하여 과거학습에 소극적이며 대신 향사에 주력했던 데 비해 소수서원은 침체한 당시의 서원에 새로운 활로를 선구적으로 개척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남인 명사들의 후손들이 그 선조의 영정을 소수서원에 보관하려 하였다. 현재 영정각에 안향·주세붕과 함께 모셔져 있는 이원익·이덕형·허목·채제공의 화상이 바로 그것이다.

62 대원군에 의해 많은 서원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서원이 있다. 그들은 각자 나름의 유래와 특색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고민한다. 조선시대 서원의 첫 문을 열었던 소수서원이 이런 고민을 해결하여 오늘날에 알맞은 새로운 서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3. 소수서원의 문화유산

3.1 건축공간과 건물

소수서원은 원래 절터에 자리했던 만큼 주변경관의 풍치가 뛰어나다. 왼쪽의 작은 동산에 심겨진 푸르른 소나무와 오른쪽의 그리 높지 않은 언덕 기슭으로 흐르는 죽계수 사이의 그리 넓지는 않으나 아늑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배치는 후대에 보이는 전형적인 동·서재를 좌우에 둔 강당을 중심축으로 하여 앞에 두고 사묘를 뒤의 산기슭 쪽에 두는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강당인 명륜당은 외삼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나오지만, 유생들이 기숙하는 생활공간인 동·서재는 명륜당 뒤쪽에 일자로 한 채만(직방재直方齋, 일신재日新齋의 현판만 2개 걸렸음) 있다. 또 제향공간인 문성공묘는 명륜당의 왼쪽 후면에 배치되어 있다. 뿐 아니라 후대에 지은 부속건물들도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창건 당시의 사정을 담은 『죽계지』나 소수서원의 기록에서 이를 자세하게 말해주는 문자가 없어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애초에 문성공묘를 먼저 세우고 묘를 참배하는 유생을 위한 독서처로서 강당을 추가로 세우는 형식을 취하였던 데다, 초창기이니만큼 서원제도가 미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현재 소수서원 내에 배치되어 있는 10여 채의 건물 모두 몇 차례 중수되었거나 추가로 세워졌다. 그중에서 초창기의 자리에서 모습을 전해주는 것은 문성공묘, 명륜당, 직방재, 전사청, 경림정 정도이며 지락재, 학구재, 장서각, 고직사, 영정각은 후대에 세워졌다. 각 건물에 관한 간단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소수서원 강당인 명륜당

- 문성공묘 : 보물 제1402호, 1543년 완공.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집. 안향을 주벽으로 안축·안보·주세봉을 좌우로 배향하여 춘추로 향사하는 제향공간
- 명륜당 : 보물 제1403호, 1543년 준공. 정면4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 제생이 모여 강론하고 통독하는 강학공간이며 모임을 갖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내부에 소수서원이란 사액현판과 백록동규白鹿洞規·사물잡四勿箴·경재잡敬齋箴·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등 유생들을 훈육하고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판이 걸려있다.
- 직방재 : 세워진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직방재 현판을 만들 때의 기록에 건물 벽에 붙어 있던 이황의 글씨를 모각했다 하므로 창건 당시 세워졌다고 추정된다. 결방으로 두었던 공간을 확장하고 일신재라는 현판을 붙였다. 모두 전면 6칸 측면 2칸으로 유생들이 기숙하는 생활영역으로 사묘 강당 누정과 함께 유생들이 장수하는 공간을 구성한다.
- 전사청 : 제기祭器 보관과 제물을 마련하는 곳으로 초창기에 세워진 듯하다.
- 경림정 : 1545년 주세봉이 세운 후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 서원 입구 오른쪽에 있는 정자이며 옆으로 죽계가 흘러 풍치가 좋다. 전면 3칸 측면 1칸이며 유생들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유식遊息 공간이다.
- 장서각 : 창건 당시 500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하므로 아마도 이 시기에 세워졌다고 보인다. 1819년에 현재 위치로 옮겨 세웠다.
- 지락재 : 풍기군수이던 이준李揆이 1614년에 세웠다.
- 학구재 : 어린 학습생을 위해 두었던 동몽재를 1730년 중수하면서 이름을 바꾼 건물
- 고직사 : 유사(兪師)의 지휘를 받아 서원을 관리하는 하인院直이 거처하는 건물.
- 영정각 : 영정 봉안을 위해 1975년에 세운 건물



소수서원 일신재, 학구재, 지락재

3.2 소장 유물

소수서원은 현재까지 470년간을 지속해 오면서 국가에서 내려주었거나 개인이 기증했으며 서원 자체에서 마련한 적지 않은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중 영정으로는 문선왕전좌도文宣王殿座圖(보물 제485호), 회현영정(국보 제111호), 주세붕영정(보물 제717호), 이원익·이덕형·허목·채제공의 영정이 영정각에 봉안되어 있다. 문선왕전좌도는 공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96인의 제자를 배열한 일종의 의궤도이다. 영정의 외곽선 우측에 정덕正德 원년(1506)이란 연대 표기가 있어 오래되었음을 알려준다.

회현영정은 1318년(고려 충숙왕 5) 영정을 그리라는 왕명이 있었으므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543년(중종 38) 서울에서 후손이 받들고 내려와 문성공묘에 봉안했으나 채색이 바래고 족자가 훼손되어 1559년(명종 14) 화공 이불해李不害의 손으로 개수되었다.

주세붕영정은 제작연도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그 생시인 16세기 중반에 제작되어 서원에 소장되어 오다가 1633년(인조 11) 문성공묘에 정식으로 봉안되었다고 보인다. 이원익 이하의 영정은 대개 18세기 이후에 이모移摸된 것이다.

이외에도 주세붕과 이황의 친필 흘기笏記(의식儀式의 순서를 적은 글)와 『죽계지』, 『추원록』, 『육선생유고』, 『가례언해家禮諺解』의 목판과 임금이 내린 소수서원의 편액·각 건물의 명칭을 새긴 편액, 강당과 경림정 내부에 걸린 주세붕·이황 등의 시문을 새긴 현판들이 있다.

석각石刻으로는 경림정 건너 취한대 아래에 죽계수와 닿는 바위에 백운동과 경敬자를 새긴 경석敬石이 유명하다. 경은 리理와 함께 주자성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화두로서 건물이름에 직방·경림을 붙인 것과 더불어 주세붕의 서원창건이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3 장서와 자료

유생이 독서하기 위해 서원을 찾았는데 그 자료가 되는 서적이 없다면 서원으로서는 존재가치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백운동서원을 창건하던 주세붕 역시 건물 축조와 더불어 서적 확보에 주력하였다.

우선 서원 터를 고르면서 습득한 낫쇠 120근을 서울에다 내다 팔아서 서적을 구입하였고 여기에 독지가의 기증과 자신의 장서를 합하여 500권을 갖추었다. 이때 확보된 도서의 목록은 주세붕이 백운동서원 창건과 함께 순흥에 관한 기록을 담아 편찬했던 『죽계지』의 「장서록」에 나와 있다. 이를 분류하여 대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경서 : 『주역대전』 『춘추부록대전』 『예기대전』 『시대전』 『서대전』 『주례』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등 사서오경류
- 성리서 : 『근사록』 『주자대전』 『성리대전』 『주자어류』 『대학연의』 『심경』 『이락연원록』 『소학』 등 성리설 관계를 담은 서적
- 역사서 : 『송감宋鑑』 『명신언행록』 『통감』 『동국통감』 등의 사서와 『박물지』 『속박물지』의 유서류
- 문장서 : 『문선』 『초사』 『운부군옥』 『문장귀범文章軌範』
- 문집 : 『한창려집韓昌黎集』 『유자후집柳子厚集』 『번천집樊川集』 『완릉집完陵集』 등

500권의 장서가 많지는 않지만 경사자집에 걸쳐 유가의 기본서적을 구비하려 한 주세붕의 노력이 돋보인다. 책이 귀하여 대개 필요한 서적을 필사해 지적 갈증을 해소하던 조선 중기의 시기에, 그것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풍기의 벽촌에 이런 고급정보를 담은 서적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수서원의 성가를 높였다. 물론 건물도 좋고 교육환경도 우수하며 유생 대우도 후하다는 좋은 조건을 갖추기도 했지만, 웬만한 도시에서조차 구해 보기 어려운 이런 서



소수서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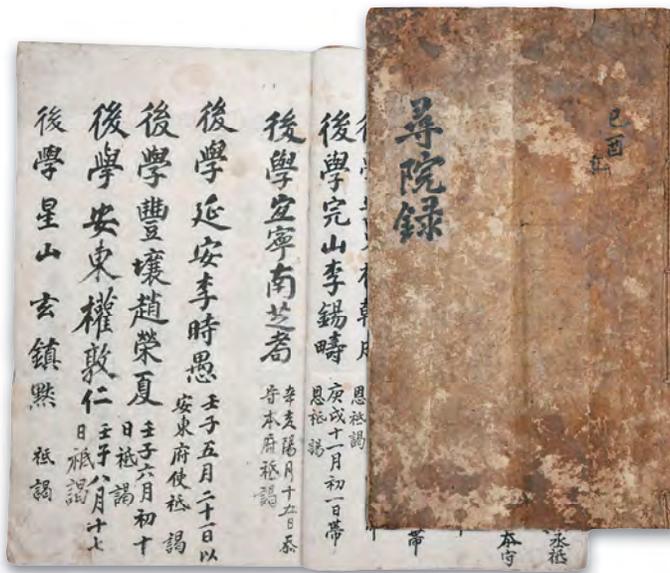
적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인근 고을은 물론 하삼도 및 강원도와 서울의 선비들까지도 먼 길을 마다않고 소수서원을 찾았던 것이다.

소수서원에 관한 자료로는 우선 창건사실을 수록한 『죽계지』(주세붕찬)와 창건 후의 일록日錄이라고 할 수 있는 『운원잡록雲院雜錄』, 안현이 서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운영관계를 규정한 『소수서원등록』(일본강점기 조선사편수회에서 활자본으로 간행)과 각종의 잡록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서원소유의 토지관계를 기록한 각종의 전답문서 노비문서와 도서목록을 적은 책자(7종), 건물 중수관계의 기록들도 있다. 서원운영과 관련된 문서로는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한 『전장기傳掌記』가 주류를 이루며 서원운영을 맡은 원임 집사들의 명단이 20여 종 된다. 서원에서 공부한 유생 명단이나 강의내용을 적은 입원록 거재록 통독잡록 등의 십여 종도 있다.

소수서원을 찾은 사람들의 인명을 적은 『심원록尋院錄』이 창건 초기부터 현재까지 32책으로 전해진다. 시대의 변천에 따른 소수서원의 명망을 가늠할 수 있

는 자료이다. 이외에도 현재 장서각에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을 중심으로 한 장서가 91종이나 소장되어 있다.

이런 서책과 자료들은 소수서원에 부설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지만, 이와 별도로 개인의 문집 속에 소수서원의 풍광이나 건물 흥학興學에 관한 기문記文과 시문이 상당히 많다. 소수서원에 관한 자료는 2007년에 발행된 『소수서원지』에 수록되어 있다.



『심원록』

4. 소수서원의 제향 인물

4.1 소수서원의 제향 인물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서원인 동시에 가장 먼저 사액을 받은 곳이다. 1542년(중종 37) 주세붕이 풍기군수에 부임하여 안향을 모시는 사당을 세웠고, 그 이듬해에 안향의 영정을 사당에 봉안함과 동시에 사당 앞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건립하였다. 이 서원은 1549년(명종 4) 풍기군수였던 이황의 건의를 받아들인 경상감사 심통원의 요구에 의해 1550년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을 받아 최초로 사액서원이 되었다.

서원은 지역의 유생들이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장소인 동시에 교육을 위한 곳이었으며, 유명한 유학자(도학자)의 학문과 덕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이 때문에 서원에는 교육을 위한 강당(講堂)과 함께 유학자를 제향하는 사당(祠堂)이 있다. 소수서원에는 안향을 비롯하여 안축, 안보, 주세붕이 제향되었는데, 이들 인물을 추가로 제향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기도 하였지만, 소수서원에 제향된 인물은 모두 4명이다. 안향은 우리나라에 주자학을 도입한 인물이고, 안축과 안보는 순흥 출신의 학자로서 순흥 안씨의 대표적 인물이다. 주세붕은 풍기향교를 중수하였고, 소수서원을 건립한 후 앞의 3명을 제향한 인물이다.

소수서원에는 사당이 건립된 다음 해인 1543년(중종 38)에 안향의 영정[초상화]가 이곳에 봉안되었다. 이 영정은 원래 1318년(충숙왕 5) 초상화를 그려 모시라는 왕명에 따라 그려진 것으로 순흥향교에 봉안된 것이었다. 1457년(세조 3)에는 부사 이보흠(李甫欽)과 순흥 유생들이 단종복위를 도모하다가 순흥부가

폐지됨으로써 초상화는 서울의 종가에 옮겨졌다. 그 후 주세붕이 풍기군수에 부임하여 사당을 건립하면서 그 이듬해에 종손인 전 주서 안정(安班)이 이를 모시고 와서 소수서원의 사당에 봉안하였다.

1544년(중종 39) 9월에는 안향을 모신 소수서원의 사당에 문정공 안축(安軸)과 문경공 안보(安輔)의 위패가 다시 추가로 모셔졌다. 안축은 충숙왕에 대한 절개가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안향의 학문을 계승한 덕이 있는 군자였다고 한다. 안보 역시 청렴하고 맑은 기풍을 지닌 가운데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때 배향되었다.

그 후 이 서원을 처음 건립한 주세붕(周世鵬)을 추향(追享)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명종 연간에 주세붕을 추향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때에는 이황의 반대 때문에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1633년(인조 11) 12월에 주세붕을 다시 추향하였다. 이때 고을 유생들은 여현(旅軒) 장현광(張顯光)(1554-1637)에게 절목을 보내 문의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풍기군수로 재직하면서 사액을 받는데 기여한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을 함께 추향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 유생들은 이 서원에 이황을 추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문성공 안향의 영정이 사당 안에 주벽(主壁)으로 모셔져 있고, 안축과 안보 두 선생의 위판이 동쪽과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황의 위판을 함께 추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안향의 영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황의 위판을 영정 아래에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이것은 조정에 알려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다. 더구나 이황은 문묘에 배향된 큰 학자이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제향하는 것은 대현(大賢)에게 오히려 누가 될 뿐만 아니라 위차 문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리하여 이때 이황의 추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세붕만 추향됨으로써 소수서원에는 안향을 비롯하여 모두 4명의 인물이 제향되었다. 이곳에 제향된 인물의 위패 순서는 안향을 가운데 두는 주벽(主壁)으로 하였고, 그 왼쪽에는 안축과 주세붕의 위패를 모셨으며, 오른쪽에는 안보의 위패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1683년(숙종 9)에 순흥부가 다시 회복되면서 1686년(숙종 12)에 안향

의 영정과 위패를 다시 이곳에 봉안하였다. 성호星湖 이익李翼(1681-1763)은 이 지역을 유람하던 중에 이곳에 들러 배알하면서 강당의 서쪽에 공자와 70제자의 그림을 비롯하여 안향과 주세붕의 영정이 있다고 회고하였다.

소수서원에는 「대성지성문선왕 전좌도大成至聖文宣王 殿座圖」 외에 회현晦軒 안향, 신재慎齋 주세붕의 영정이 있다. 「대성지성문선왕 전좌도」는 1506년(중종 1)에 공자를 중심으로 좌우에 96명의 인물을 그린 인물화인데, 공자를 주향으로 하고 아성제공제후亞聖諸公諸候를 종향으로 하였다. 이 그림은 보물 제485호로 지정되었다.

회현 안향의 영정은 원래 1318년(충숙왕 5)에 그려져 순흥향교에 봉안되었는데, 세조 때 단종복위 과정에서 순흥부가 폐지되면서 종가에 보관되었다가 중종 때 문성공의 사당이 건립되면서 이곳에 모셔졌다. 이것은 국보 제111호로 지정되어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현재 영정각에는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신재 주세붕의 영정은 정확한 제작 연대와 봉안 경위에 대해 알 수가 없으나, 원래 3본이 그려져 봉안되다가 1911년 도난 사건으로 현재 하나만 남아 있다. 이 영정은 보물 제7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안향安珦 | 1243년(고종 30)-1306년(충렬왕 32). 고려 후기의 문신이고 학자이다. 그는 본관이 순흥이고, 처음의 이름은 안유安裕이며, 자는 사온士蘊이다. 그는 주희의 호인 회암晦庵을 따라 회현晦軒이라고 하였고,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그의 아버지는 밀직부사를 지낸 안부安孚이고, 그는 영주시 순흥면 석교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260년(원종 1)에 과거에 급제하여 교서랑과 직한림원이 되었고, 삼별초 난 때 강화도에 억류되었다가 탈출한 후 내시원과 감찰어사를 지냈다. 1275년(충렬왕 1) 상주판관을 하면서 미신의 타파에 힘썼고, 그 후 판도사 좌랑·좌부승지·좌승지·동지공거·정동행성 원외랑이 되었다. 그는 1289년(충렬왕 15)에 국왕과 공주를 모시고 원나라에 가서 원의 문묘와 국자감을 둘러본 후 『주자전서朱子全書』를 베끼고 공자와 주희의 초상화를 그려서 돌아와, 우리나라

에 처음 신유학인 성리학을 도입하였다.

그는 동남도병마사와 지공거 및 밀직사사를 하다가 다시 원나라에 다녀왔고, 그 후에 집현전과 수문전의 태학사 및 수국사가 되었다. 1303년(충렬왕 29) 국학학정 김문정(金文鼎)을 보내 공자와 70제자의 그림 및 문묘에서 사용하는 제기·악기·사서·주자서 등을 구해오게 하였다. 그는 심학전(瞻學錢)과 박사를 두어 국자감의 운영에 기여하였고, 대성전을 건축하여 공자의 영정을 모시었으며, 이제현(李齊賢)(1287-1367)과 정몽주(鄭夢周)(1337-1392)에게 학문적 영향을 끼쳐 성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문묘에 배향되었고, 1543년(중종 38) 소수서원에 제향되었다.

안축(安軸) | 1287년(충렬왕 8)-1348년(충목왕 4). 고려 후기의 문신이다. 그는 본관이 순흥이고, 자는 당지(當之)이며, 호는 근재(謹齋)이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그는 안석(安碩)의 아들로 태어나 1307년(충렬왕 33) 성균시에 급제하여 금주사록과 수찬 및 단양부 주부를 지냈고, 1323년(충숙왕 10) 원나라의 제과(制科)에 급제하여 당시 4년 동안 원나라에 억류된 충숙왕을 위해 글을 올려 석방을 주장하였다. 그는 고려에 돌아와 성균관 약정과 강릉도 존무사(存撫使)를 지냈고, 전법판서와 동지공거(同知貢舉)를 거쳐 상주목사가 되었으며, 그 후에 밀직부사와 정당문학 및 첨의찬성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1330년(충숙왕 7)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관동지방에 근무할 때 116편의 시와 4편의 기문으로 구성된 『관동와주(關東瓦注)』를 지었고, 민지(閔漬)가 편찬한 『편년강목(編年綱目)』을 다시 엮었으며, 충렬왕·충선왕·충숙왕의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경기체가인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죽계별곡(竹溪別曲)」을 지었다. 1544년(중종 39)에 소수서원에 배향되었다.

안보(安輔) | 1302년(충렬왕 28)-1357년(공민왕 6). 고려 후기의 문신이다. 그는 본관이 순흥이고, 자는 원지(員之)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그는 안석의 아들이자 안축의 동생이며, 1320년(충숙왕 7) 과거에 급제하여 경주사록이 되었고,

다시 춘추관 수찬·편수관·감찰규정·좌정언·감찰장령 등을 지냈다. 1345년(충목왕 1) 원나라 제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다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귀국하여 우대언 겸 집의와 전법판서가 되었다.

1352년(공민왕 1) 밀직제학을 지낸 후 이어서 감찰대부제조전선사가 되었다. 1355년(공민왕 4) 과거의 부시험관인 동지공거가 되어 진사를 선발하였고, 정당문학을 지낸 후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사직하고자 하여 고향에 가까운 동경 유수가 되었으며, 그 후에 양광도와 교주도의 안렴사가 되었다. 그는 우현보·이보림·이집 등의 문하생을 배출하였고, 1544년(중종 39)에 형인 안축과 함께 소수서원에 배향되었다.

주세붕周世鵬 | 1495년(연산군 1)-1554년(명종 9).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그의 본관은 상주이고, 자는 경유景遊이며, 호는 신재慎齋 또는 남고南阜이고, 시호



주세붕 영정(보물 제717호)



『무릉잡고』

는 문민文敏이다. 그는 함천에서 태어나 6세에 『소학』을 읽었고, 10세에 사서四書を 두루 읽었다. 1522년(중종 17) 문과에 급제한 후 부수찬과 사간원 헌납을 지냈다. 그는 1541년(중종 36) 풍기군수에 부임하여 4년 동안 재직하였다. 그는 이때 풍기향교를 중수하였고, 이듬해 순흥에 안향을 모시는 사당을 세웠으며, 그 다음해에 안향의 영정을 모시는 한편 그 앞에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 그는 서원의 원규院規를 마련함과 동시에 안향과 안축 및 안보를 제향할 때 직접 봉안문과 고유 제문을 짓기도 하였다.

그는 성균관 사성·홍문관 직제학·도승지·대사성·호조참판을 역임하였고, 1549년(명종 4)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해주에 수양서원首陽書院을 세워 최충을 제향하였으며, 후에 성균관 대사성과 동지중추부사를 지내고 청백리에 뽑혔다. 그는 『무릉잡고武陵雜稿』를 남겼고, 『죽계지竹溪誌』와 『이훈록彝訓錄』 및 『동국명신언행록東國名臣言行錄』을 편찬하였으며, 「도동곡道東曲」·「육현가六賢歌」·「군자가君子歌」·「태평곡太平曲」 등 경기체가 형식의 글을 지었고, 1633년(인조 11)에 소수서원에 배향되었다.

4.2 소수서원의 남인계 인물 영정

또한 소수서원에는 제향된 안향과 주세붕의 영정과 함께 이원익·이덕형·허목·채제공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오리 이원익(1547-1634)의 영정은 1723년(경종 3) 그의 5대손인 전 안동부사 이인복李仁復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종택의 '호성공신도상'을 모사한 후 보내와 이곳에 모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본관이 전주이고, 호는 오리이다. 선조 초에 문과에 급제한 후 우부승지·안주목사·대사헌·이조판서를 거쳐 임진왜란 때 우의정과 영의정을 지낸 후 호성공신이 되었다. 그는 김육金瑬(1580-1658)의 건의에 따라 대동법을 경기도에 실시하였고, 광해군과 인조 때에도 영의정을 지내는 등 모두 5차례 영의정을 역임하였으나 매우 청빈하였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한음 이덕형(1561-1613)의 영정은 1832년(순조 32) 9대손인 이의익李宜翼이 용궁현감에 재직할 때 소수서원의 유럽과 협의하여 용궁 관아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 봉안한 것이다. 그의 본관은 광주이고, 호는 한음이며, 이산해李山海(1539-1609)의 사위이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대제학을 거쳐 임진왜란 때 명군의 파병에 기여하였고, 4도체찰사가 되어 민심의 수습과 군대의 정비에 노력하여 영의정에 올랐다. 광해군 때 명나라에 다녀와 다시 영의정이 되었으나, 폐모론에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미수 허목(1595-1682)의 영정은 1794년(정조 18) 정조가 그의 인물됨에 감동하여 연천의 은거당恩居堂에 있던 것을 모사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다시 돌려받은 원본을 소수서원에 옮겨 봉안한 것이다. 당시 유럽과 가문에서는 영남은 추로지향鄒魯之鄉이고, 순흥에 공자와 70제자 및 안향·주세붕·이원익의 영정이 모두 있다면서 그의 영정을 이곳에 봉안하였다.

그는 본관이 양천이고, 호는 미수이며, 부인은 이원익의 손녀이다. 그는 정구鄭逵(1543-1620)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기해예송 때 3년복을 주장하였으며, 삼척부사가 되어 향약을 실시하고 교화에 힘쓰는 한편 『척주지陟州誌』를 편찬하였다. 숙종 초에 이조판서와 우의정이 되었고, 허적許積(1610-1680)의 탁남

濁南에 맞서 청남淸南의 영수가 되었으며, 그 후 관중추부사가 되었고, 경신환국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저술과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그는 특히 전서 글씨에 뛰어났으며,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그는 평소 안향과 소수서원에 관련된 글을 여러 편 짓기도 하였는데, 「송경안문성공여항비松京安文成公間巷碑」와 「안문성공유상중모기安文成公遺像重摸記」 및 주세붕의 신도비명 등이 대표적이다.

변암 채제공(1720-1799)의 영정은 1799년(정조 23) 오산사梧山社의 산장 성언근成彦根의 발의로 본가의 영정을 모셔와 직방재의 마루 위에 모신 것이다. 원래 이 영정은 정구와 허목을 제향한 안동의 도연서원道淵書院에 모시기로 하였는데, 소수서원은 동방에서 최초로 세워진 서원이고 이미 공자 등 여러 현인의 영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를 바로잡고 의리를 천명한 뜻이 서로 같다면서 이곳에 봉안한 것이다.

채제공의 본관은 평강이고, 호는 변암이다. 그는 영조 중반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도승지·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정조 때 사노비의 폐를 교정하는 절목을 마련하는 한편 탕평책 등 6조를 건의하는 동시에 신해통공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후 좌의정·영의정을 지냈고,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그는 허목의 영정을 모사할 때 표제標題를 쓰기도 하였다.

그러면 조선후기 소수서원에 이들 남인계 인물의 영정을 봉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되고 사액된 서원인 동시에 대표적인 남인계 서원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공자와 70제자의 상과 함께 성리학을 처음 도입한 안향의 영정을 봉안한 곳이라는 점에서 도학적 정통성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후기 명분과 의리가 중요한 가운데 봉당정치가 본격화 되면서 서원은 자기 당파의 정치적 정통성 확보와 유리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정치사회적 기반이 되었는데, 남인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영정 봉안은 정치적, 도학적 명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5. 소수서원의 제향祭享과 의례儀禮

5.1 서원향사의 모범, 소수서원 제향의례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으로서 향례에 대한 의례절차를 적은 가장 오래된 홀기를 보존하고 있다. 창건 당시 주세붕 군수가 제정한 수필手筆 홀기와 나중에 퇴계 이황이 이를 수정, 보완한 홀기는 서원 향사의례 절차의 시원적인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이황이 보완한 서원의 향사는 관학인 향교의 석전을 기준으로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앞의 신재 홀기를 수정하는 사유와 의례절차의 의미를 고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교 석전이나 서원향사의 가장 표준적인 자료가 된다. 소수서원에서는 이 홀기의 원형대로 시행하고 있다.

주세붕의 초창기 제향의례 | 주세붕은 1543년(중종 38) 서원을 세우고 먼저 각종 의례의 절차를 제정하였다. 이는 향사절차의 초창기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향교 석전이나 가례들을 참조하여 제식과 향사 홀기를 작성하고 있다. 『죽계지竹溪志』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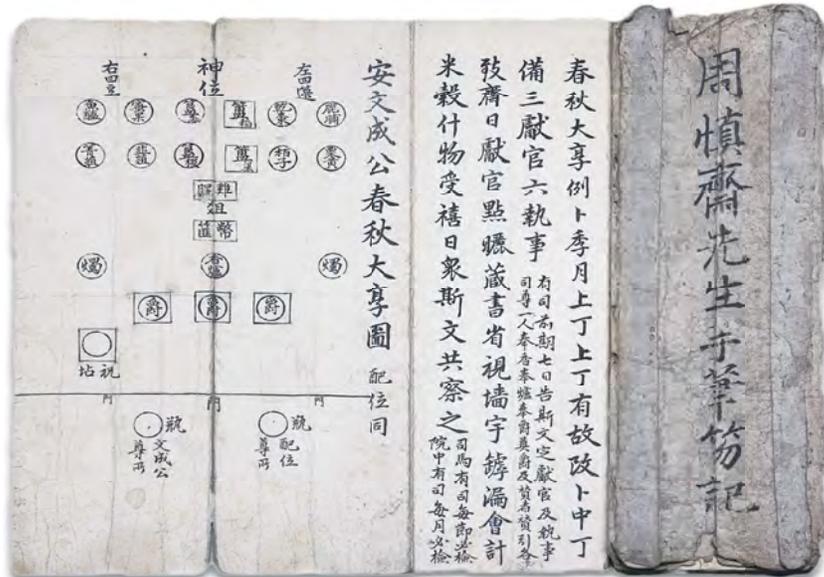
재배례再拜禮만 행한다.

향을 올리는 예를 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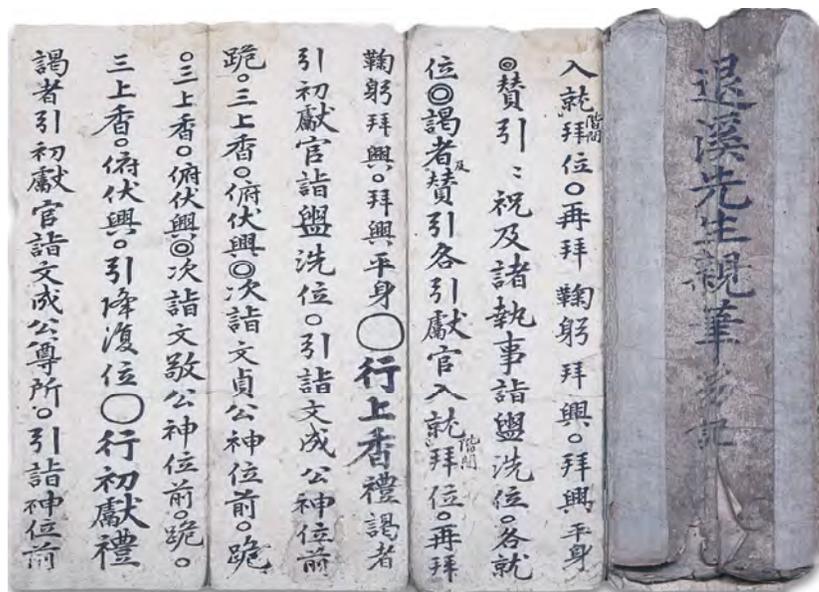
초헌관을 인도하여 손을 씻는다.

초헌관을 인도하여 문성공 신위 앞에 나아가 향을 3번 올린다.

아동이 죽계사竹溪辭 3장을 읽는다.



「주신재선생 친필 흘기」



「퇴계선생 친필 흘기」

다음 배위配位에 나아가 3번 향을 올린다.
 인도하여 내려와 위치로 돌아간다.
 초헌례를 행한다.
 초헌관을 인도하여 존소尊所로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신위 앞에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술잔을 올린다.
 축문을 읽는다.
 다음 배위 앞에 나아간다.
 술잔을 올린다.
 축문을 읽는다.
 초헌관을 인도하여 위치로 돌아간다.
 아동이 도동곡 1-3장을 노래한다.
 아헌례를 행한다.
 초헌례와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위치로 돌아간다.
 아동이 도동곡 4-6장을 노래한다.
 중헌례를 행한다.
 아헌례와 같이 하고 인도하여 위치로 돌아간다.
 아동이 도동곡 7-9장을 노래한다.
 음복하고 제육을 받는다.
 나머지는 향교의 제례의식과 같다.

라 하여 초창기 서원 의례의 모습을 전해준다. 그리고 진설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서黍·직稷·도稻·양粱의 밥은 매 위마다 각 3되(네 종을 합하여 쌀 각 1두)
 연밀과는 매 위마다 각 4되(모두 참쌀가루 1말 5되, 조청 3되, 기름 3되)
 건포乾脯·건치乾雉·건수乾鱸 중에서 알맞은 것으로 갖춘다.

жат · 개암 · 밤 · 대추 중에서 알맞은 것으로 갓춘다.

부추 · 포 · 무 · 미나리 중에서 알맞은 것으로 갓춘다.

어해魚醢 · 토해兎醢 중에서 알맞은 것으로 갓춘다.

축문은 봉안문奉安文을 쓴다. 특별한 제사가 아니면 폐백은 쓰지 않는다.



『안문성공춘추대향도安文成公春秋大享圖』

이황이 수정한 소수서원 향사의례 | 이러한 초창기 주세붕의 서원향사 의례는 퇴계 이황에 의하여 1549년(명종 4)에 보완 수정되는데, 이때에 관학인 향교의 석전釋奠을 기준으로 하여 주세붕의 흥기를 수정하는 이유와 의례절차의 의미를 고증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서원향사는 물론 향교석전에 있어서도 표준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이황은 진설에 대하여도 학교의 제사에 밀과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 대신 녹해鹿醢(사슴 고기로 담근 젓)를 쓰게 했으며, 밤 대신 어수魚鱠

(건어나 포와 같은 마른고기)로 교체하였다. 이황의 진설법을 보면 먼저 왼쪽 변(마른음식)에는 말린 생선과 사슴고기포, 대추와 잣을 진설하며 오른쪽 두료에는 물고기 젓과 사슴고기 젓갈, 무와 부추를 올린다. 그 사이 왼쪽에는 양보를 두는데 보簋에는 쌀과 조를 담고, 오른쪽에는 양례를 두는데 메기장과 차기장을 담는다. 그 아래 조俎에는 닭이 놓이며 그 아래로는 폐백을 놓았다. 현재 소수서원의 향사는 이황의 진설법을 따르고 있다.

5.2 소수서원만의 독특한 「도동곡道東曲」

소수서원은 향례절차에 있어 다른 서원과는 상이한 특징이 있는데 초헌·아헌·종헌이 술잔을 드릴 때마다 「도동곡道東曲」이라는 악장樂章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 도동곡은 주세붕周世鵬이 직접 지은 경기체가景幾體歌로 유학의 연원과 그 실천방법, 공자와 주자의 도학道學, 그리고 안향에 의해 도학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묘宗廟와 문묘文廟를 제외하고 제례祭禮에서 노래가 불리는 곳은 소수서원이 유일하다.

도동곡의 가사는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교儒敎의 연원과 그 실천, 그리고 공자孔子와 주희朱熹 등의 도학道學을 칭송하고, 이 도학이 안향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을 찬양하고 있다.

향사 의례에서 도동곡이 불리는 절차는 당시 주세붕과 이황이 손수 쓴 흘기에는 나오지 않고, 『죽계지』 「행록후」의 제사법식에 등장한다. 이를 따라서 오늘날 사용하는 흘기에는 악정樂正이라 하여 그 순서가 들어 있다. 실제 향사에서 초헌례에서 축관이 축문을 읽고 나면 도동곡 1-3장(수장)을 노래하고, 아헌례에서 안향의 신위에 술을 따른 다음 4-6장(중장)을 부르고, 종헌례에서 역시 안향의 신위에 다시 술을 따르면 7-9장(종장)을 노래한다.

향사에서 도동곡을 부를 때에는 젊어서부터 도동곡을 불렀던 장로 1인과 젊은 유생 1인이 묘정에서 마주서서 같이 부르며 하고 있는데 곡의 원음을 잃지 않고 후세에 영원히 전승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 헌작 시에 삼헌관이 바뀌듯

翁。나。자。다。... 大防을...
 傳總柱閣果아仲尼나다쿠리리오기
 三韓子萬古애眞儒臣누리오시니小白이廬山이
 오竹溪이廬水로다錫身衛道호소분네이리어니
 와專樓瞻卷이그功이오뎡다傳吾蹟實來素然何
 如
 六賢歌
 親圓矩方繩直準中... 伊川의慶也大成會空
 주區누일리오고
 早枕孫吳... 一履至道力踐
 景幾何如
 手深月窟은... 駕風飄靈歷覽
 景幾何如
 駕學力行傳... 而公의事神不惑綱維
 景幾何如
 安靜... 韓公의端嚴護重이이
 누제... 公無...
 居廟堂明... 其君... 正의
 進退有... 其君...
 履跡曲七章



『죽계지』에 수록된 「도동곡」 9장과 소수서원 도동곡 장면

이 도동곡을 부르는 유생도 헌관이 바뀔 때마다 장로를 제외한 젊은 유생 3인으로 교체하여 도동곡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4명이 된다. 종묘대제와 문묘 석전에서 제례악이 연주됨으로써 예악의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의례를 더욱 장엄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도동곡의 가사는 초·중·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장) 복희伏羲 · 신농神農 · 황제黃帝 · 요순堯舜이 하늘을 이어 법을 세우시니, 그 광경 어떠하고,
- (2장)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하여야만 실로 중中을 잡을 수 있다는 말로 주고받는 성인의 심법心法이란 이것 뿐이다.
- (3장) 우禹 · 탕湯 · 문왕文王 · 무왕武王과 고요皋陶 · 이윤伊尹 · 주공周公 · 소공召公, 군신이 서로 만나시니, 그 광경 어떠하고.
- (4장) 하토下土가 아득하니 상제께서 이를 걱정하사 우정대인玕頂大人(공자)을 수사洙泗 위에 내리시니, 만고연원이 그치지 아니하다.
- (5장) 안연顔淵의 사물四勿과 증자曾子의 삼성三省이여, 우리러 봄에 더욱 높고 뚫으려 함에 더욱 견고하며 앞에 보이는 듯 하다가 문득 위에 있도다. 성인을 배우며 수고로움을 잊으셨으니, 그 광경 어떠하고.
- (6장) 따라야 할 것은 하늘이 명한 성性이며, 함양해야 할 것은 호연浩然한 기운, 지성무식至誠無息이 근본이니라.
- (7장) 광풍제월 서일상운, 도통이 끊어진 기나긴 날에 어떻게 아셨을까
- (8장) 사람 욕심 견잡을 수 없어 하늘까지 뒹였도다. 1천5백 년 만에 주자께서 태어나시어 경敬으로 근본 세워 큰 언덕 만드시어 옛 성인 이으시고 후학을 열어 주셨도다. 아 공자와 다를 바 있으랴!
- (9장) 삼한三韓 천만년에 진유眞儒를 내리시니, 소백산이 여산廬山이요, 죽계竹溪가 염수濂水로다. 학교를 일으키고 도를 보위함은 작은 일이겠지만 주자朱子를 높이 모신 그 공이 크시어 우리나라에도 도가 전하였으니 그 광경은 어떠하리있고.

5.3 소수서원의 제향의례

소수서원의 제향은 음력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정기적으로 ‘향알香謁’이 거행된다. 또 매년 정월 초 5일에는 ‘정알正謁’이, 그리고 음력 3월과 9월의 초정일 初丁日에 지내는 춘추향사가 있다.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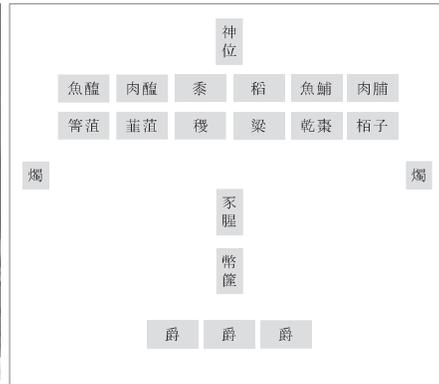
역할의 분담과 향사준비 | 향사를 위해 보통 원장과 각 유사들은 3일 전에, 헌관과 제집사 및 참례자는 이틀 전에 서원으로 입재入齋하는데, 이들은 향사를 마칠 때 까지 서원 밖을 나갈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당일 모여서 제를 올리고 있다. 서원향사는 모든 제관들이 강당에 모인 후, “개좌開坐아뢰오”라는 삼창으로 시작된다. 첫 순서는 경독敬讀부터인데, ‘경독’은 옛날 서원의 유생들이 유학의 핵심을 요약한 「잠언箴言」을 낭송하던 강회이다. 성독을 잘하는 유생이 앞에 나와서 「백록동서원규白鹿洞書院規」와 「사물잡四勿箴」 등을 차례로 경독하며 이를 경청한다.

경독을 마치면 여러 역할들을 분담하는데, 강당에 걸려있는 ‘분정판’에 집사들의 명단을 적어 초헌관初獻官에게 보인 후 좌중을 한 바퀴 돌며 함께 열람하고 각자의 소임을 확인한다. 다음은 축문祝文을 쓰는데 유사 한 사람이 초헌관과 축관을 인도하여 문성공묘에 들어가 원위元位 앞에서 축관이 꿇어 앉아 축문을 쓴다. 초헌관은 축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축관을 향상香床에 두고 복위를 하면 유사 한 사람이 초헌관과 아헌관 등을 전사청으로 인도하여 향사에 올릴 술을 향아리에 담아 봉封하며, 향아리마다 제향인물별로 ‘정위’, ‘차위’, ‘삼위’, ‘사위’를 써서 구분한다.

소수서원의 진설도陳設圖 | 서원의 향사에서 준비된 제수를 제기에 담는 것을 실찬實饌이라 하고, 이를 법식에 맞게 제상 위에 차리는 것을 진설이라 한다. 소수서원의 제수는 향사 전날 도감 3명이 서원에 모여 제물을 정해 장을 본 후 당일 아침 일찍 서원으로 옮겨온다. 진설은 담당 집사들이 종류별로 제수를 정돈



소수서원 제향독축



문성공원위 진설도

한 다음 주향과 배향을 구분하여 제기에 올린다.

현재 소수서원의 향사에는 대체로 이황의 진설법을 따르고 있는데, 4두에 어해, 육해, 정저, 구저, 4변에 어포, 육포, 건조, 백자, 보에는 도량을 담고 궤에는 서직을 담는다.

홀기笏記와 의례절차 | 소수서원은 향례의 절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창건 당시 군수로 부임한 주세봉이 정한 것을 기초로 하고, 후에 이를 수정한 퇴계 이황의 홀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소수서원의 향사는 예전에는 자정이 지나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당일 아침에 모여 제를 올린다. 제관들은 강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정이 되면 도감이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향사는 상읍례上揖禮, 상향례上享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칠번두撒籩豆, 망예례望座禮, 음복례飲福禮 순으로 격식에 맞춰 거행된다.

- 상읍례上揖禮 : 제향이 시작되고 헌관獻官이 묘정 문밖에 서면 뒤를 이어 제관들이 두 줄로 도열하여 마주보며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집례가 홀기를 낭독하면서 행사가 시작된다.
- 상향례上享禮 : 초헌관이 문성공 안향 등의 신위 앞에 나아가 향을 세 번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의례이다. 이후의 순서는 안축安軸부터 주세봉까지 위치에 따라 예를 올린다.
- 초헌례初獻禮 :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이다. 초헌관이 문성공의 신위 전에 나아가 꿇어앉아 술을 올리면, 축이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동쪽을 향해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바로 도동곡을 창창한다.
- 아헌례亞獻禮 : 신위에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순서로 절차는 초헌례와 같다. 다만 축문 낭독이 없고 도동곡은 악장을 바꾸어 다시 부른다.
- 종헌례終獻禮 : 신위에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순서로 절차는 아헌례와 같다. 역시 도동곡은 악장을 바꾸어 다시 부른다.
-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 신이 흠향한 음식을 초헌관이 맛보는 의례이다.
- 철번두撤籩豆 : 이제 제상의 제물을 거두는 의례인데, 축이 번과 두를 조금씩 옮겨 놓는 것으로 대신한다. 철번두가 끝나면 신위에 대한 모든 의례는 끝났으므로 참례자 모두가 절을 올려 신을 다시 보내는 예를 올린다.
- 망예례望瘞禮 : 신위에 올린 축문을 땅에 묻는 의식이다. 보통 사우의 서편에 구덩이를 마련하여 놓는데, 소수서원에서는 공간이 협소하여 옹기항아리로 대신하고 있다. 이로서 모든 예는 마무리 된다.
- 음복례飲福禮 : 과제일 아침 강당에서 이루어지며 이 의식을 마쳐야 최종적으로 제례가 끝나는 것이다. 모든 제관이 모여 지난 행사 중 예에 벗어난 것이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음복은 먼저 초헌관을 비롯한 오집사五執事에게 제주를 따르고 전 제관에게 제주를 따라 같이 삼순배를 한다. 음복례를 마친 후에는 당회堂會를 개최하고 모든 행사를 마친다.



소수서원 향사 의례

소수서원 주요연혁

1541년(중종 36)	7월 주세붕이 풍기군수로 부임
1542년(중종 37)	8월 풍기군수 주세붕이 숙수사宿水寺 옛터에 안향의 사묘祀廟 터를 닦다
1543년(중종 38)	2월 문성공묘 준공, 4월 서원건립 착수, 8월 서원(강당, 동·서재) 완공, 사묘에 안향의 영정을 봉안하고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으로 이름함, 경림정 건립
1544년(중종 39)	9월 안축安軸과 안보安輔 배향
1546년(명종 원)	2월 안현安瑗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
1547년(명종 2)	2월 경상감사 안현「사문입의斯文立議」 제정, 서원유생공궐을 위한 각 고을의 지원 대책 마련, 서적 기증
1548년(명종 3)	10월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
1549년(명종 4)	12월 이황이 청액소 올림
1550년(명종 5)	소수서원이라 사액하고 사액현판 내림
1552년(명종 7)	경연에서 안수가 소수서원에 서책 반사 요청
1633년(인조 11)	11월 주세붕 추배
1686년(숙종 12)	안향의 영정을 보관하면서 위패를 봉안
1719년(숙종 45)	제월루 상량(이진만 찬)
1723년(경종 3)	8월 이원익의 영정을 직방재에 봉안함
1760년(영조 37)	「거제절목居齋節目」을 정하다. 유생 110인이 참여함
1767년(영조 43)	소수서원 전답 약 25결 소유
1794년(정조 18)	9월 허목 영정을 직방재에 봉안함
1799년(정조 23)	11월 체제공 영정을 직방재에 봉안함
1832년(순조 32)	5월 이덕형 영정을 직방재에 봉안함 * 이 시기쯤 영정실이 세워짐.(申佐摸의 嶠南紀行, 安永鎬의 影幀室 并小識)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훼철 때에 훼철을 면함
1917년	공자 76대손 공영이孔永貽가 회헌선생신도비명 보내음
1962년	회헌영정晦軒影幀 국보 제111호로 지정
1963년	사적 제55호로 지정
1968년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大成至聖文宣王殿坐圖 보물 제485호로 지정
1974년	영정각影幀閣 신축
1981년	3월 18일 주세붕영정周世鵬影幀 보물 제717호로 지정
1982년	유물관 고직사 건립
1986년	취한대翠寒臺 옛터에 신축
1988년	서충대친림연회도 경북유형문화재 제238호 지정
1991년	사료전시관 건립
2001년	‘소수서원’ 현판 경북유형문화재 제330호로 지정, 소수서원 소장 판목 경북유형문화재 제331호로 지정
2003년	소수박물관 준공
2004년	소수서원 문성공묘 보물 제1402호 지정, 소수서원 강학당 보물 제1403호로 지정
2008년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개관
2010년	중국 백록동서원과 지매결연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소수서원·도산서원』, 2011.
- 민족영상, 소수서원향사 DVD, 2008.
- 배현숙, 『소수서원 수장과 간행 서적고』, 『서지학연구』 31, 서지학회, 2005.
- 소수서원, 소수서원약의,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 2008.
- 송정숙, 『소수서원 입원록(入院錄) 분석』, 『서지학연구』 34, 서지학회, 2006.
-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서원 享祀』, 안동민속박물관, 2009.
- 윤희면,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 사례』, 『역사교육』 92, 역사교육연구회, 2004.
- 영남문화연구원, 『소수서원지』, 소수서원, 2007.
- 영주문화유산보존회, 『향교, 서원의 제례 및 음식 연구』, 영주문화유산보존회, 2012.
-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 _____,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 이정화, 『소수서원 건립의 문화적 토대 연구』, 『동양고전연구』 48, 동양고전학회, 2012.
- 정만조, 『조선시대서원연구』, 집문당, 1997.
-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79.
-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 정창원, 『소수서원의 복원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소수서원 죽계 옆의 '경'자 바위





남계서원 전경





남계서원 배치도

1. 남계서원의 연혁과 제향인물

1.1 창건과정

남계서원의 창건과 함양사림 | 남계서원은 한국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의 건립에 뒤이어, 1552년(명종 7) 함양 출신의 일두—蠹 정여창鄭汝昌(1450-1504)을 제향하기 위하여 건립된 초창기 서원이다.

남계서원이 위치한 함양은 수많은 역사적 흔적들이 남아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동시에 언제나 문향文香이 가득한 선비의 고을이기도 하였다. 함양의 선비들은 글과 예의를 숭상하는 풍속을 귀하게 여겼다. 이 고장 출신인 옥계玉溪 노진 盧禎(1518-1578)은 시에서 “우리 고장은 예부터 문헌이 성하여 아이들도 흔하게 글자를 알았다네”라고 하였고, 또 “백 리의 마을에는 예속이 있고, 집집마다 자식 가르쳐 시서를 읽는다네”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함양은 다양한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안고 있다. 5, 6세기에는 가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7세기 초에는 신라와 백제가 그 주도권을 놓고 힘을 겨루었던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함양이 다양한 문화를 섭취하고 융합할 수 있는 지역이었음을 뜻한다. 함양, 안의 지역은 인접한 전라도의 남원이나 운봉, 장수 지역과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었다. 함양지역은 영, 호남의 문화가 서로 소통하고 왕래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이후 남계서원의 성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남계서원의 설립 움직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의 설립에 바로 뒤이어 나타났다. 백운동서원의 설립과정을 지켜 본 함양의 유림들은 남계서원의 설립에 그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백운동서원의 설립을

지켜 보면서, 함양 유림들은 서원의 설립에는 지방관을 포함한 관변 측의 절대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백운동서원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1546년(명종 1)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안현(安瑗)이 사문입의(斯文立議)를 마련하여 서원의 향사(享祀), 학전(學田)의 설치, 서적의 운용 및 관리, 노비와 원속(院屬)의 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였던 것에 힘입은 바 컸다. 특히 1548년(명종 3)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李滉)이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賜額)과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였던 사실은 함양 유림들에게도 상당한 자극이 되었다.

남계서원은 백운동서원이 건립되고 9년 뒤인 1552년(명종 7)에 함양유림들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강익(姜翼)(1523-1567)이 주도하여 박승임(朴承任), 노관(盧漑), 정복현(鄭復顯), 임희무(林希茂) 등이 정여창(鄭汝昌)을 위한 서원을 건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선 향내의 유림들이 쌀과 곡식을 부조하면서 건립을 위한 여론을 환기하였다. 동시에 당시 군수로 재직 중이던 서구연(徐九淵)이 강당 건립을 위한 물력을 지원하였다. 강당을 조성하던 중 서구연의 체직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공사를 재개한지 칠년 후인 1559년(명종 14)에 마침내 완성하였다. 그 사정은 『남계서원경임안(藍溪書院經任案)』, 『남계서원부보록(藍溪書院裒寶錄)』에 잘 보인다. 그러나 1555년(명종 10) 일부 고을사람들의 반대와 흉년, 또는 후임 수령들의 무관심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1559년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마침내 1561년(명종 16) 강당과 사우를 완성하고 그해 2월에 정여창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1562년부터 강학활동을 시작하였고 1563년(명종 18)에는 남명 조식과 여러 문생들의 강론이 있었다. 그리고 1564년에는 김우홍(金宇弘)이 함양군수로 부임하자 힘을 합하여 동서재사(東西齋舍)를 세우고, 작은 연당을 파고 못가에 매죽(梅竹)을 차례대로 심어 서원 영건의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서원의 전체적인 규모가 완성되었으니, 건축을 시작한 해로 따지면 도합 12년이 된다. 건립 당시 서원의 규모는 강익이 지은 「남계서원기(藍溪書院記)」에 '사우와 강당 및 동서재와 앞 문간까지 모두 30여 칸이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 「남계서원기」에 의하면 남계서원 창건은

‘여러 군자’들의 합치된 마음과 ‘세 분 사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이 중 ‘여러 군자’는 박승임과 노관, 정복현, 임희무 등이며, ‘세 분 사또’는 서구연徐九淵과 윤확尹確, 김우홍金宇弘이었다.

김우홍은 서원 중건된 후에도, 통독通讀의 규정을 정하여 매일 초하루에 서원에 제생諸生들을 모아 경전을 가지고 논변하면서 선비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였다. 그는 또한 감사에게 네 읍의 식염食鹽, 두 군의 어해魚鹽, 세 강의 어장漁基을 서원에 영속시킬 것을 요청하여 학생들의 장학에 만전을 다하였다. 또 노관에게는 장서의 구매와 비치를 책임지우고, 양홍택에게는 재정문제를 맡겨 서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서원의 남는 재물은 고을 안의 마을과 서당에 나누어 주어 각기 그 혼례와 상례를 돕도록 하고, 봄가을로 강신례講信禮를 행하여 한 고을의 일정한 법식이 되도록 하였다.

1566년 남계로 사액을 받다 | 곧이어 1566년(명종 21)에는 강익을 중심으로 한 함양의 사림들이 사액을 청하니 예조가 편액과 서책을 하사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기를 청하자 임금이 마침내 ‘남계濼溪’로 사액하였다. 남계는 서원 결의 시내 이름이다. 이것은 소수서원, 임고서원, 수양서원에 이어 네 번째로 받은 사액이었으며, 함양 출신 관료들의 힘을 입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관은 남계서원의 설립에 대해 약간의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았다. 사관은 우선 정여창과 김굉필은 중중이 추증한 일로 보아 역시 근대의 큰 선비였을 것이니, 서원을 세워 제사지내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는 점을 적시하면서도 약간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조정의 이러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액이 이루어진 것은 향촌의 유림들로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었다. 사액되던 때에 옥계 노진은 다음과 같은 춘추 향사의 축문을 찬술하여 일두 정여창의 공적을 기렸다.

學究性理 학문은 성리학을 탐구하셨으며

行隆孝義 행실은 효도와 의리를 높이셨네

蔚爲先覺	우뚝하게 선각자가 되시었으며
師式士類	스승으로 선비에게 본이 되셨네
禮宜稱祀	예의로는 의당 향사함이 알맞아
朝命優異	조정 명령이 넉넉하고 특별했네
鄉邦興慕	고을사람이 흥기하고 사모하여
建院祇事	서원을 건립하고 공경히 섬기네

한편 이황도 사액을 기려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시에서는 정여창 선생에 대한 이황의 존경심이 여실하게 나타난다.

堂堂天嶺鄭公鄉	함양은 당당한 인물 정공의 고을이니
百世風傳永慕芳	백세에 전하는 품모 길이 아름다운 향 사모하네
廟院尊崇眞不忝	서원에서 존숭함이 더럽히지 않음이니
豈無豪傑應文王	어찌 문왕에 상응할 호걸이 없겠는가

남계서원이 설립된 후 인근의 명망 있는 사족들은 서원을 강회와 회합의 장소로 즐겨 찾았다. 조식의 고제인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顛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의 형인 개암開巖 김우굉金宇宏과 함께 노관盧禿, 매촌梅村 정복현鄭復顯, 개암介菴 강익姜翼, 죽암竹庵 양홍택梁弘澤 등이 몇 일간 남계서원에서 유숙하면서 학문을 강론하고, 시를 창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임진·정유왜란과 남계서원 | 그러나 남계서원은 임진·정유왜란을 만나면서 한차례의 소용돌이를 겪는다. 그리고 앞서 살핀 것처럼 강익의 주도로 서원이 건립되었다면 그것을 지켜간 대표적 인물이 바로 정경운鄭慶雲(1556-?)이었다. 그는 진양이 본관으로 자가 덕옹德顛, 호는 고대孤臺이다. 정인홍鄭仁弘을 부모와 같이 우러르던 제자였으며, 임진왜란 때 함양에서 초유사 김성일, 의병장 김면과 함께 활약하였던 향촌의 선비였다.

그러던 중 정유재란(1597년)이 일어나 일본군이 함양 일대를 습격하자 남계서원의 원임들은 정여창의 위판을 땅속에 묻었다. 정경운은 당시의 일을 『고대일록』에 자세히 남겼는데, 이에 의하면 1597년(선조 30) 8월 7일 진경윤(陳慶胤)과 함께 남계서원의 서책을 옮기고 위판을 묻었다고 한다. 결국 남계서원은 왜적에 의해 불타고 말았지만, 정경운이 급히 숨긴 위패는 다행히 흙속에서 온전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 이때가 1599년 3월 15일의 일이다. 정경운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서원에 가서 위판을 감춘 곳을 헤쳐 보니, 2년 동안이나 흙 속에 있었어도 한 군데도 상한 곳이 없었다. 분칠한 면이 새롭게 만든 것과 같았고, 자획(字劃)도 깎인 곳이 없었다. 흥적의 화가 또한 미치지 않았으니, 참으로 하늘의 도움과 귀신의 꾸짖음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정여창의 위판을 찾아낸 정경운은 전란이 끝나자 1599년 3월 18일 작은 움막을 지어 그 위판을 봉안하였다. 이후 인근에 있는 신계서원(新溪書院)과 함께 재건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차문제로 갈등이 일어나 마침내 복원세력을 중심으로 한 신진파가 남계서원의 운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600년(선조 33)에 노사계(盧士戒), 정경운(鄭慶雲) 및 강위로(姜渭老) 등 10명이 나촌(羅村)에 이건설 것을 계획하였다. 1602년(선조 35)에 그 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 해인 1603년(계묘)에 남명 조식의 고제이며 의병장으로도 활동하였던 조종도(趙宗道)가 공담(公蕃) 18두락지를 주고 상환하여 서원 터를 옮겼다. 원래의 자리에 홍수가 잦아 서원 터로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602년에는 노진과 강익의 위차문제 등으로 이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어났으며, 3년 동안의 준비 끝에 1605년(선조 38)에 남계의 옛터로 건물을 옮겨 짓고 정여창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이때 불타버린 사액 현판을 다시 받고, 전 현감 하응도(河應圖)를 원장으로 추대하며 새로운 원규(院規)를 제정하였다.

당시의 사정을 정경운의 『고대일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을사년(1605년)에 상喪을 만난 후에는 인사人事에 뜻을 두지 않고 다만 삼현三賢의 사당이 풀썩에 매몰될까 염려할 뿐이었는데, 강극수姜克修가 반궁泮宮에 유학하여 돌아오지 않아 신위를 봉안하는 것을 기약할 수가 없었다. 쇠하고 슬픈 몸을 애써 일으켜 다반으로 조처하여서 날을 택하여 이안移安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고을 사람들은 혹 죄로 여기기도 하고 혹 소홀함을 지적하기도 하고 혹 성례盛禮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써, 분을 품고 이를 갈며 비어飛語를 날조하며 음험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반드시 죄인의 처지에 빠뜨리고자 하였다.

이 기록은 전란이 끝난 후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함양 향촌의 분열상을 기술하고 있다. 정경운은 39세(1594년)에 남계서원의 유사가 되어 여러 가지 일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당시 남계서원에서는 ‘정여창-노진’으로 이어지는 선진층과 ‘정여창-강익’으로 이어지는 후진층이 노진과 강익의 위차 문제를 두고 대립하게 되었다.

1610년(광해군 2) 정여창이 문묘에 종향되었고, 1612년(광해군 4)에는 서원의 원래 위치인 남계 옛터로 다시 옮겼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남계서원에 별묘를 지어 강익을 향사하고, 1642년(인조 20)에 정온鄭蘊(1569-1641)과 유희인兪好仁(1445-1494)을 병향壇享하였다. 이것은 북인이 몰락함으로써 남계서원이 남인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677년(숙종 3)에는 정온이, 1689년(숙종 15)에는 강익이 추가로 승향繼享되었다. 별묘에는 유희인이 남았다가 1820년(순조 20)에 정홍서鄭弘緒(1571-1648)를 추향하였다.

1.2 남계서원 운영 주도층의 변화

조선시대의 서원 중에서 남계서원만큼 정치 상황에 따른 변화의 폭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남계서원은 초창기에는 함양 지방의 주요 사족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고문서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임안經任案』, 『원록院錄』, 『부보록哀寶錄』 등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계한 성씨는 풍천노씨豐川盧氏, 하동정씨河東鄭氏, 진주정씨晉州鄭氏, 진주강씨晉州姜氏, 진주하씨晉州河氏, 제주양씨濟州梁氏, 나주임씨羅州林氏, 그리고 동래정씨東萊鄭氏 등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일두 정여창의 본손인 하동정씨와 옥계 노진의 후손인 풍천노씨, 그리고 강익의 후손인 진주강씨와 경상우도의 대표적 명족인 진주하씨 등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남계서원의 창립을 주도했던 개암 강익, 갈천葛川 임훈林薰, 덕계德溪 오건吳健, 옥계玉溪 노진盧禎,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顙 등은 모두 남명 조식의 핵심 문도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덕천서원의 초기 원생으로 입록된 정구鄭逵, 하응도河應圖, 박이장朴而章, 하혼河湓, 안희安熹, 문경호文景虎, 정경운鄭慶雲 등도 남계서원에도 동시에 입록된 인물들이다.

한편 임진왜란 기간 중 남계서원의 원임들과 유생들은 의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함양출신의 노사상盧士尙, 노사예盧士豫, 노주盧胄, 강린姜縝, 박여량朴汝樑, 정경운鄭慶雲 등은 의병활동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남명 조식의 문도들이었다. 임란 중에 남계서원은 사실상 폐허가 되었다(『고대일록孤臺日錄』, 1595년 춘 2월 1일조). 또한 서원書院의 서책들은 다 흩어졌다. 임금이 직접 하사한 『주자대전朱子大全』 6권이 분실될 지경이었다. 『성리대전性理大全』을 포함한 대부분의 책들이 불에 타고 흩어져 버렸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파괴되었던 남계서원도 빠르게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정유재란으로 건물이 소실되자 정경운鄭慶雲 등이 옮겨 놓았던 위판을 다시 묘우를 만들어 위패를 봉안하였다. 정경운의 『고대일록』에 의하면 위판位版을 봉안할 때, 유생이라고는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오직 정경운 만이 참여할 정도로 쓸쓸한 정경을 보여 주었다. 서원의 재건립이 불가피하자, 1600년(선조 33)부터 노사계盧士戒, 정경운鄭慶雲 등이 주도하여 나촌羅村에 이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때 새 서원건립의 공정이 끝나자 옥계 노진의 아들인 노사회盧士誨를 서원 원장으로 추대하여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서원의 이전 과정에서 함양의 향론은 크게 분열되었다. 이후 임진왜란

을 전후한 시기에 남인들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되자 남계서원에도 그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 상당한 알력이 나타났다. 특히 내암 정인홍이 퇴계 이황과 회재 이언적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자 그 갈등의 기운이 서원 내부에까지 확산되었다. 남계서원으로서는 일대 위기상황이었다. 즉 남명 조식의 고제인 내암 정인홍의 제자들이 원장을 포함한 임원들로 임명되자 이들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다수의 사족들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여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서원 운영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은 배향자의 위차 문제에 있었다. 주향자인 정여창을 가운데 두고, 배향(配享)으로 모신 옥계 노진과 개암 강익 양인의 위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쟁단이 벌어졌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인가를 두고 사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라섰다. 남계서원 설립을 주도한 강익 측에서는 양인의 위차상 동격을 의미하는 병향(並享)을 주장한 반면에, 노진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제 간이기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노진측은 위차문제의 부당성을 문제시하여 향회를 열고 서원의 위차를 변경한 정경운 등을 영원히 서원 명부에서 삭제하고, 이들의 배후에 있는 정인홍과 한강 정구의 서원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개암 강익도 임진왜란 중 의병활동에 관여하였고, 그는 당대의 정객이었던 내암 정인홍과 깊은 교류관계를 맺고 있었다. 내암 정인홍은 노진 측의 주장에 격분하여 남명 조식 선생을 모신 덕천서원을 방문하여 경상우도의 공론을 결집하였다. 그리하여 남계서원 집행부를 탄핵하는 통문을 전국에 유포시켰다. 이에 서원의 운영권은 다시 강익 측에 넘어가고, 분쟁에 패배한 노진측은 그를 향사하는 신계서원(新溪書院)을 별도로 건립하여 옮겨가게 되었다. 그 후 강우지역에서 북인세력의 중심지로 화한 남계서원은 서인 측과 참여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정치의 공간으로 변하였다.

한편 18세기 중엽이후 서원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부터 서원의 원장은 더 이상 함양 인근의 사족출신이 원장을 맡지 않고 중앙의 노론계 인물들이 장악하게 된다. 예로 당시 노론계의 핵심 인물이었던 도암 이

재李緯(1680-1746)는 1743년(영조 19)부터 임종 직전인 1746년(영조 21)까지 4년간 원장을 역임하였다. 이재 이후 서원의 원장은 모두 노론계 중앙 고위관료 출신이 역임하였다. 영의정 유척기兪拓基,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찬선 김이안金履安, 판서 이민보李敏輔, 사부師傅 송환기宋煥基, 영의정 남공철南公轍, 영의정 조인영趙寅永 등 노론계의 쟁쟁한 실력자들이 경원장京院長을 역임하였다. 이 시기는 무신란(1728)으로 인해 특히 영남사족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대응이 매우 첨예한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 때 정여창의 후손인 하동정씨는 동계 정온의 후손으로서 무신란을 주도한 정희량鄭希亮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당시 집권세력인 노론계와 정치적 연합을 이룰 수 있었다.

1.3 제향인물

실천하는 유학을 강조한 정여창 | 정여창鄭汝昌(1450-1504)의 호는 ‘일두—蠹’이다. 그의 호는 ‘천지간의 한 좀벌레’라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책만 보는 서생’이라는 의미인데,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 지었다고 한다.

정여창은 남계서원 서북쪽에 위치한 함양 개평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당대 조선 사림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1431-1492)에게 학문을 배웠다. 이 시기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 문하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던 정여창은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았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고, 이후 지리산 아래 섬진나루에 은거하였다. 한때는 세자의 스승이 되어 연산군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함경도 종성에 유배되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에 전념하였으나, 결국 풀려나지 못하고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문인들이 무려 2달에 걸쳐 함양

까지 옮겨와 남계서원 뒤 승안산 기슭에 안장하였다. 정여창의 학문은 후대에 불교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폭이 넓고 유연했다. 또한 율령과 법률제도 등 국가경영에 필요한 실무에도 해박했는데, 이것은 실천하는 유교를 강조한 그의 사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정여창은 1610년(광해군 2) 문묘에 종향되었다.

선비의 절의를 보여준 정은 | 동계桐溪 정은鄭蘊(1569-1641)은 함양 출신으로 병자호란 때 스스로 할복함으로써 선비의 매서운 절의를 보여준 인물이다. 정은은 15세 때에 처음으로 임훈林薰(1500-1584)을 찾아가 제자가 되어 학업에 정진했다. 그후 여러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운 정은은 늦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정계의 중심인물로 부상하였으며,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까지 인조를 호종하였다. 그러나 결국 인조가 항복하자 자결을 시도하였으며, 이 또한 실패하자 향리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서원을 건립을 주도한 강익 | 개암介庵 강익姜翼(1523-1567)은 함양 효우촌에서 승사랑 강근우姜謹友와 어머니 남원양씨 사이에 태어났다. 어린 나이의 강익은 성격이 호탕하고 얽매임이 없어서 사냥꾼과 각저角觚꾼들을 좇아 유희遊戱에 탐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큰 꾸지람을 받고 정희보鄭希輔에게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1549년(명종 4)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장성하여서는 조식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김우옹金宇顛 등과 더불어 학문을 닦았다. 조식은 “나는 일찍이 남에게 속임을 당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의심하지 않을 사람은 오직 자네뿐이다.”라며 그의 사람됨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강익은 정여창을 경모하여 일생을 두고 남계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전념하였다. 1566년(명종 21)에는 영남유생 33인의 소두疏頭가 되어 정여창의 신원을 청하였다. 그는 정여창의 학문을 본 받아, 평소 후학들에게 말보다는 실천중심의

학문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爲憐吾道已寒灰	우리 도가 이미 꺼져감이 안타까운데
月冷鍾城歲幾回	선생 귀양 가신지 몇 해이던가
凜凜遺風能起敬	늠름한 유풍은 공경을 일으킬 만 하니
庶今狂簡幸知裁	지금의 거친 사람들 마름질 할 수 있으리

이 시는 강익이 정여창을 추모하며 부른 것인데, 향후 서원이 정여창의 정신을 계승하여 선비들을 양성하는 새로운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을 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1567년(명종 22) 오건吳健의 천거로 소격서참봉에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갑자기 병이 깊어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그의 행적을 기려 1689년(숙종 15)에 남계서원에 추배하였다.

남계서원 전경





2. 남계서원의 경관과 건축

2.1 야경 입지의 남계서원

남계서원은 연화산蓮花山 줄기의 끝자락 구릉지에 자리를 잡고, 서원 앞의 남계 들판을 바라보고 있다. 『남계서원지』(권1 「산수원위山水源委」)는 “황봉대에서 …… 한 갈래가 남으로 몇 리를 내려와서 백암산이 되었는데, 이것이 서원을 마주보고 앉은 안산이다.[自黃鳳 …… 一支南來數里爲白巖山 乃書院之對案也]”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계서원은 앞 들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남계와 안산인 백암산을 향하여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들판을 바라보는 야경野景 입지를 한 것이다. 남계서원의 야경 입지는 서원의 문루인 풍영루風詠樓에 걸린 「풍영루기」에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평평하게 넓은 들판, 감돌아 엷히듯 냇물이 흐르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남계서원이 들어선 터는 앞이 낮고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경사지다. 서원의 건물들은 전저후고前底後高의 경사진 지형에 적합하도록 배치를 하였다. 강학공간은 낮은 곳에, 제향공간은 높은 곳에 배치하여, 각 공간이 가진 위계를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지형을 이용하여 서원 입구에서부터 사우까지, 즉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서원의 배경이 되는 주산主山을 의식하게 하여 서원의 위상을 건물 배치를 통해 남계서원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남계서원은 이렇게 경사진 지형 조건을 활용하여, 서원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탁 트인 시야를 조성하여 서원 전체에 활달한 분위기가 감돌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서원에 주향으로 모신 선현의 연고지에 주로 세워졌다. 서원이 세워진 곳의 주변 산수는 어디 곳이나 있는 산수가 아니라, 선현이 성리학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한 곳이었기 때문에 연고지의 산수 자체는 이미 서원 유생들에게 충분히 학습의 효과를 확보한 곳이다. 남계서원의 「풍영루기」에는 이러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 유연^{悠然}히 스스로 얻은 뜻이 있다. 두류산^{頭流山}(지리산) 만첩 봉우리와 화림천^{花林川}(남계의 상류) 아홉 굽이 흐름에서 거의 정여창 선생의 풍표^{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을 우러러 볼 수 있으니, 흡사 선생을 모신 자리에서 증점^{曾點}이 쟁그랑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해서 풍영루라고 이름 하였다.

이 기문으로부터 서원의 누에 올라 주변의 산수를 보면서 유생들이 보고 느꼈던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산수 자체를 흠상하는 일에 머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 ‘정여창 선생의 풍표’와 ‘선생의 기상’으로 연결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원은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는 곳에 세워졌다.

2.2 남계서원 건립과 한국 서원건축 배치 형식의 제시

남계서원은 조선시대 서원 건축 배치형식의 정립과 성리학에 바탕을 둔 교육을 위한 공간구성을 해결한 서원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서원의 입지 및 건물 배치, 공간구성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은 서원에 요구되는 사우와 강당, 재사, 전사청, 장서각, 고직사 등은 있으나 이들 건물의 배치 형식은 명쾌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사우, 강당, 재사^{齋舍} 간의 상호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은 별개의 영역에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세워져 있으나

사우는 남향을, 강당은 동향을 하고 있어서 서로 사이의 상관성이 약하다. 또, 강학공간의 주 건물인 강당과 재사도 서로 일정한 관계의 설정 없이 배치되어 있다. 강당의 측면 뒤로는 일신재와 직방재가 길게 배치되어 있고, 그 동북방향 뒤로는 학구재와 지락재가 ‘ㄱ’자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서원보다 약 10년 뒤에 세워진 남계서원은 많은 측면에서 소수서원과 다른, 초창기 서원 건축의 배치형식을 정립한 서원임을 확연하게 보여 준다. 남계서원에서는 제향공간에 속하는 건물들이 서원 영역 뒤쪽에 별도로 자리하였고, 강학공간에 속하는 건물들은 서원 영역 앞쪽에 자리 잡았다.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학후묘의 건물 배치 방법은 전저후고의 지형 조건과 잘 어울린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지형을 가진 터에, 지형적 위계와 건축적 위계가 동시에 높아진 곳에 선현의 위패가 모셔진 제향공간이 서원 영역 가장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남계서원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서원 건물 배치형식은 이후 세워지는 많은 서원 건축에 그대로 적용된다.

남계서원의 강학공간에서 원생들이 생활하는 재사는 마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강당은 그 뒤에 위치한다. 이렇게 서원의 강학공간에서 동재와 서재가 강당 앞마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배치를 하는 것도 조선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일반적으로 완만한 경사가 있는 땅에 자리를 잡는다. 따라서 전재후당(前齋後堂), 즉 앞에 재사가 놓이고 그 뒤에 강당이 놓이면, 자연히 강당은 재사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게 된다. 학생들이 머무는 재사보다 선생이 머물며 학생들과 강론하는 강당이 위계가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남계서원에는 지형의 고저차가 건축의 위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남계서원에서 서원 건축의 형식이 정립되는 데에는 많은 성찰의 과정이 있었다. 1552년(명종 7) 강익(姜翼, 1523-1568) 등은 남계서원의 건립을 결의한다. 강익의 문집 『개암집(介庵集)』(下·附錄)에 실려 있는 그의 연보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동방의 서원은 주무룡이 세운 죽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건문이 미숙하여 이의가 없을 수 없었으나 선생은 의연히 동요되지 않고 역사를 거행하기로 결의하였다.[我東方書院, 惟周茂陵設竹溪之外, 無有焉, 見聞未熟, 異議橫生, 先生毅然不動, 決意舉役]” 주무릉은 백운동서원(후에 소수서원으로 사액됨)을 세운 주세붕을 말한다. 소수서원은 죽계를 끼고 건립되었다.

강익은 남계서원의 건립을 이야기하면서 소수서원이 세워질 당시로서는 새로운 건축 형식이었던 서원에 대한 ‘건문의 미숙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동시에, 서원은 향교와 같은 기존 관립 교육기관의 건축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서원은 성균관이나 향교 등과는 달리, 기존 제도권의 지배를 받는 교육기관으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권 내의 교육기관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서원 건축 형식 역시 향교와 달라야 했다. 이렇듯 남계서원에서 제시된 서원 건축형식은 새로운 교육 및 학문에 대한 욕구의 산물이었다. 이와 같이 남계서원은 이후의 서원 건축에 지침이 되는 많은 점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전저후고의 경사지 입지, 전학후묘와 전재후당의 건물 배치 및 공간 구성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은 서원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장수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학문을 닦고 수양하는 것으로, 유식은 그 속에서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활시위를 팽팽히 당긴 듯한 긴장감 속에서 경전과 수양에 몰두하는 일 뿐 만 아니라, 그 시위를 풀어주는 과정 역시 학문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기정진이 쓴 「풍영루중수기」(『일두선생속집—蠹先生續集』 권3)에는 장수와 유식의 개념이 남계서원의 건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지 잘 설명되어 있다.

증점의 기수가의 풍영과 안자의 누추한 거리에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 같이 보이는 것은 그 규모와 기상이 비록 같지 않은 점이 있으나, 배우는 자들이 하나라도 폐해서 강론하지 않아서는 안 됨이 분명하다. 이 서원에는

거경재와 집의재가 있는데, 대체로 증자와 맹자의 뜻을 미루어 체용의 학문으로 일삼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이른 바 안자가 배운 바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시위를 당기되 놓지 않는다면 문왕과 무왕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니, 정신을 일으켜 펴고, 성정을 쉬며 기르는 데에, 어찌 한쪽 편의 일을 없앨 수 있겠는가.[曾氏之沂上風詠, 與顏子之巷居如愚, 規模氣象, 雖有不同, 而學者不可廢一而不講也明矣, 是院之有居敬集義齋者, 蓋將追曾, 孟之志, 以事體用之學, 是所謂學顏子之所學, 而張而不弛, 文武不能, 發舒精神, 休養性情, 又烏可無一段事乎]

이는 결국 경전을 읽고 수양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을 가다듬으며 쉬는 공간도 서원에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수와 유식의 공간은 서원에 조화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남계서원에는 장수하는 공간 뿐 아니라 유식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풍영루중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듯이, 남계서원에서 ‘거경’과 ‘집의’로 상징되는 장수의 공간은 곧 강당 영역이다. 이러한 곳은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긴장과 공경의 공간이다. 철저하게 예禮로 지배되는 공간이다. 반면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내는 유식의 공간은 서원 안의 연못, 그리고 동재와 서재의 누마루로 된 현軒이 이에 속한다. 이 유식공간은 후일 풍영루가 조영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남계서원에 나타난다.

이렇듯, 유식의 장소를 대표하는 서원 누각에는 주변 “산수山水를 건축화한다.”는 중요한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실제로 남계서원 풍영루에 오르면, 수려한 주변 산수와 풍광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에 관해 정환필鄭煥弼은 「풍영루기」(『일두선생속집一蠹先生續集』 권3)에서 “두류만첩의 산봉우리와 화림구곡의 물줄기에서 가히 선생의 청풍淸風을 보고 선생의 기상을 우러러 볼 수 있다.[頭流萬壘之峯, 花林九曲之流, 庶可以覽先生之淸風, 仰先生之氣象]”고 말하고 있다.

한편, “어떤 경관이 갖추어진 곳에 서원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는 서원 건축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원은 성균관이나 향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풍영루 경관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기 때문에 서원이 들어설 장소로서는 성균관이나 향교와 같이 변화한 읍내가 아니라, 산수 경관이 수려한 곳이 선호되었다. 남계서원은 이러한 사안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계서원은 연화산을 주산으로 하여, 연화산 서북쪽 산자락에 구룡을 등지고 자리하고 있다. 연화산으로부터 뺀어 나온 산줄기는 서원을 좌우에서 감싼다. 산자락으로 둘러싸이는 아늑함을 더하기 위하여, 사우 뒤쪽은 키 큰 소나무로 비보(裨補) 되었다. 서원 앞으로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계천이 흘러 화림구곡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앞 들판 너머로는 안산인 백암산이 서원을 마주보고 있다. 완만한 경사지에 올라앉는다, 뒤로는 산을 등진다, 나지막한 산자락으로 감싸여서 아늑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앞으로는 시내와 들판, 그리고 안산을 내려다 본다,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 서원을 세울 터, 즉 장수와 유식에 적합한 터이다. 남계서원은 이러한 터가 선택되어 세워졌다. 장수와 유식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또 이러한 성리학적 이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건축과 자연의 산수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

2.3 남계서원을 구성하는 건물과 공간구성

남계서원 어귀에는 홍살문과 하마비가 서 있다. 이를 지나서 들어가면 누각인 풍영루가 서 있다. 서원의 정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풍영루가 누문으로서 정문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풍영루를 지나면 강학공간이 나온다. 강학공간은 강당인 명성당, 동재인 양정재와 서재인 보인재, 그 아래의 한 쌍의 연못, 장판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성당 뒤로 있는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제향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제향공간에는 담장 안에 사우와 전사청이 자리하고 있고, 그 북쪽 옆에는 고직사가 딸려 있다.

그런데, 남계서원의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축은 일치하지 않는다. 비교적 평평한 곳에 위치한 강학공간의 축과 그 뒤 언덕 위의 제향공간의 축은 조금 어긋나 있다. 축을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평지와 구릉의 지형을 잘 살려 건물을 앉힌 결과로 볼 수 있는 한국 건축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진입공간

홍살문과 하마비 | 남계서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원 입구의 홍살문과 하마비를 거쳐야 한다. 홍살문은 서원이 신성한 구역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문이다. 실제로 문은 달려 있지 않다. 서원으로 가는 길 좌우 양쪽에 기둥 하나씩을 세워 서로 연결하는 부재를 걸치고, 그 위에 나무 살을 짝 박은 나무문이다. 소수서원에는 이러한 홍살문이 없다.

풍영루 | 홍살문과 하마비를 지나면 풍영루가 보인다. 풍영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며, 겹처마 팔작지붕의 2층 누각이다. 남계서원 정문의 역할을 겸한다. 2층의 누는 원생이나 유림이 모여 회합을 하거나 시회詩會를 열며 풍류를 즐기고 심신을 고양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풍영루에 올라 바깥 경치를 바라보면, 서원 주변의 수려한 산수가 한 눈에 들

어온다. 고개를 돌려 서원 쪽을 바라보면, 경사지를 이용하여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정형화를 추구하는 형식으로 조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남계서원을 구성하는 공간이 주는 호방함과 당당함을 느끼게 한다.

강학공간

116

풍영루 아래를 지나 서원으로 들어가면 정면으로 기단 위 높은 곳에 자리한 명성당(明誠堂)이 있다. 강당 건물인 명성당 앞 좌우에는 동재인 양정재와 서재인 보인재가 마당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서 있다. 보인재 아래쪽에는 묘정비각이 세워져 있다. 명성당 동쪽 뒤에는 장판각이 있다.

1552년(명종 7) 짓기 시작한 남계서원은 1559년에는 강당, 곳간, 부엌, 욕간을, 1561년에는 강당의 동쪽 언덕에 사우를 완성하였다. 1564년에는 동재와 서재를 완성하였고, 재사 아래에 연지를 팠다. 남계서원에서는 유생들이 학문할 강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일두 정여창의 위패를 모실 사우를 지었다. 이 점이 사우를 먼저 짓고 강당을 그 다음에 지은 소수서원과 다르다. 이는 남계서원의 강당이 사묘 건물에 부속되어 유생들의 독서처에 머무는 시설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남계서원에서는 도학을 강구하는 강학을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건축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강학공간은 강당, 동재, 서재가 “ㄱ”자 형을 이루어 그 전면에 있는 누문에 대응하면서 가운데에 마당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구심적 공간을 구성하는 서원 강학공간의 건축 형식은 남계서원에서부터 확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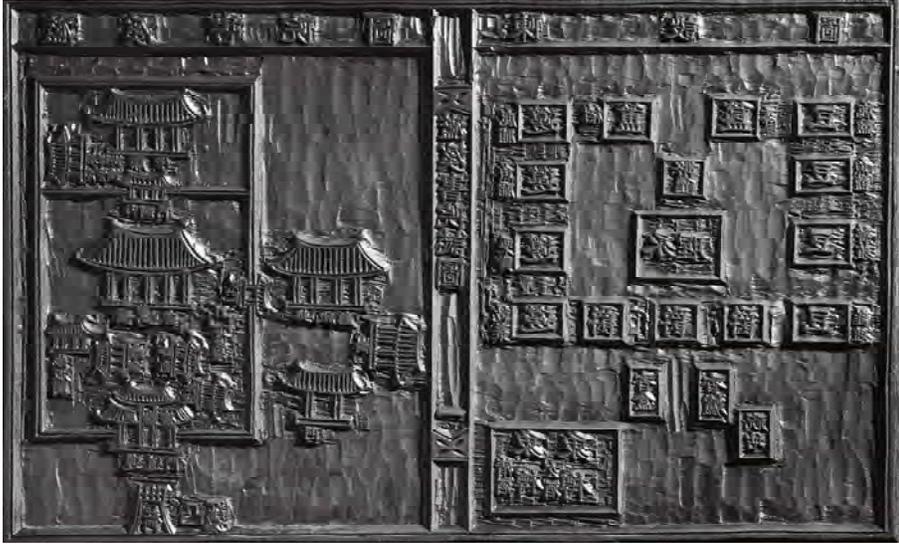
명성당 | 남계서원의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중심 건물은 강당인 명성당이다.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팔작지붕에 익공집이다. 양쪽 끝의 각 1칸은 온돌방으로 된 협실이고, 가운데 2칸은 대청이다. ‘남계(濼溪)’와 ‘서원(書院)’이라

고 쓴 2개의 현판을 대청 정면에 하나씩 나누어 걸은 것이 인상적이다. 대청을 오르면 강당 중앙에 ‘명성당明誠堂’ 현판이 걸려 있다.

강당 이름인 명성은 『중용』의 “밝으면 성실하다[明則誠]”에서 취했다. 명성당의 왼쪽 방에는 거경재, 오른쪽 방에는 집의재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거경은 『정훈』의 ‘거경궁리居敬窮理’에서, 집의는 『맹자』의 ‘집의소생集義所生’에서 취한 말이다. 거경재는 서원 원장이 거처하면서 원생들의 수업을 감독하던 곳이고, 집의재는 교수 및 유사들의 집무실 겸 숙소이다. 명성당, 거경재, 집의재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수기修己의 이념 세계를 서원 건축에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 여기에는 정여창의 학덕과 정신적 풍도風度를 사모하고 우려려 보았던 후대 사람들의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 있다.

동재와 서재 | 강당 앞에는 좌우로 동재인 양정재養正齋와 서재인 보인재輔仁齋가 있다. ‘양정’은 『주역』에 나오는 “순수한 상태의 인간에게 바른 것을 길러준다.”는 뜻의 ‘몽이양정蒙以養正’에서, ‘보인’은 『논어』의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以友輔仁]”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다.

동재와 서재는 각각 2칸 규모의 건물이다. 강당 쪽의 각 1칸은 온돌방이다. 특징적인 것은 문루인 풍영루 쪽의 나머지 1칸에 누마루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온돌방과 누마루가 한 채의 건물에 들어가게 한 것은 강학공간의 마당이 경사진 것을 이용한 결과이다. 지면이 높은 곳에는 온돌방을, 지면이 낮은 곳에는 누마루를 조성해서 좋은 조망을 확보해서 동·서재의 공간이 외부 자연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남계서원 동재와 서재의 누마루는 서원 강학공간에 유식공간을 조성한 초기의 사례를 보여준다. 주변 경관을 관망할 수 있는 풍영루는 남계서원이 창설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19세기에 지어진 건물이다. 동재와 서재의 누마루는 각각 애련헌愛蓮軒, 영매헌咏梅軒이라 부른다. 이 누마루를 통해서 동·서재 아래 누문 쪽으로 각각 조성되어 있는 연못의 연꽃과 주변의 매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남계서원의 누마루가 유식공간의 기능을 하였음을 입증한다.



남계서원도 목판



남계서원 풍영루에서 본 강학공간

이 연꽃은 1564년(명종 19) 동·서재와 함께 조성되었다. 동·서재 아래에 각각 하나씩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연꽃이 조성된 예는 다른 서원에서는 보기 드물다. 여름이면 연꽃이 핀다. 탁한 물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군자에 비유된다. 송나라 때의 성리학자 주돈이(周敦頤)(1017-1073)는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의 특징을 군자의 성품에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다.

出於淤泥而不染	진흙에 나서 물들지 않고
濯清漣而不夭	맑은 물결에 씻기면서 요염하지 않고
中通外直	가운데는 통하고 밖은 곧으며,
不蔓不枝	덩굴도 없고 가지도 없으며,
香遠益清	향은 멀리가면서도 더욱 밝아진다.

정여창은 주돈이의 영향을 받아 연꽃과 매화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동·서재의 누 이름을 애련헌과 영매헌이라고 한 것, 연당 주변에 매화를 심고 연당 안에 연꽃을 심은 것이 이를 반영한다.

장판각 | 명성당 왼쪽, 즉 남쪽에는 장판각이 있다. 정면 2칸, 측면 1칸의 건물이다. 건물 안에 보관한 목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벽체를 판벽으로 하였고, 바닥도 지면으로부터 2자 정도 띄워 놓았다.

제향공간

제향공간은 강학공간 뒤에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조성되어 있다. 제향공간은 선현의 위패를 모신 사우와 전사청으로 구성된다. 서원의 제향공간이 강학공간 뒤에 조성되는 것은 남계서원에서 비롯된다. 남계서원의 명성당 뒤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있는 내삼문과 담장으로 둘러진 영역에 제향공간이 자리 잡았다.



남계서원 사우와 전사청

이와 같이 남계서원에서는 지형적으로 단차를 두어 제향공간을 강학공간과 적극적으로 분리시켜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사우가 있는 곳은 제향을 위한 엄숙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매우 정숙하며 근엄한 분위기가 감돈다. 이 제향공간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경과 그에 중첩되어 펼쳐지는 산야의 원경은 일품이다.

남계서원의 사우는 정면 3칸의 맞배집으로 전면에는 퇴칸을 두었다. 사우 안에



남계서원 양정재와 그 앞의 연못

는 정여창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그 좌우에 정온(鄭蘊)과 강익의 위패가 각각 모셔져 있다. 사우 앞에는 관세대와 정료대가 설치되어 있다. 관세대는 제향 때 사우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을 대야를 올려놓는 곳이며, 정료대는 야간 조명을 위해 관솔가지나 기름 등을 태워 불을 밝히던 곳이다. 사우 앞마당의 한편에는 전사청이 마련되어 있다. 제기를 보관하고 제물을 대우는 곳이다.

